



# 時計塔

SIGE TOP



2020년 10월 20일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發行

제47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발행인: 安祐成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자문위원: 蘆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www.snucmaaus.org](http://www.snucmaaus.org)

## COVID-19과 37차-2021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이 어려운 판데믹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이성길 회장단에 의하여 준비가 완료되었던 37차 2020 학술대회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던 일로 지난 3월 초에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조그만 글씨로 적힌 사항을 발견하고 적시에 Westin Hotel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 동창회에는 아무런 재정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7월 1일 새로 취임한 49대 안우성 회장 회기 중에 전과 같은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진행중인 판데믹으로 장소와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여름이나 가을이면 가능할 것으로 희망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꼭 필요하면 부득이 화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모임이 될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번 10월 10일 이사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임기 1년인 49대 현 회장이 2021-2022년 6월 30일까지의 50대 회장 임기를 계속해서 맡게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교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국내외 모든 회원님들이 전처럼 참가하실 수 있게 학술대회의 날짜를 정하는데 시간상으로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데믹으로 우리 동문이나 가족이 소수만이 희생이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더 희생자가 없이 판데믹이 지나가고 많은 동문이 전처럼 안전하게 모임에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술분야는 물론 동창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의학 연구를 발표하고 손을 잡고 식사를 나누고 반기워했던 반세기에 걸친 성공적인 모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임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창회에 있었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기적인 시계탑 신문의 발행, 제6집 시계탑문집의 발행이 전처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편집위원님들, 특히 서귀숙(84)님과 인쇄소 홍창근 사장님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문집의 원고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저자님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계탑과 인쇄물을 3개월마다 기다리고 계시고 오랫동안 연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오신 많은 동문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동창회의 장학사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선희(81), 강민종(91) 두 분을 비롯하여 여러 장학위원님들이 병원 현직에서 환자도 돌보아야 하는 바쁜 시간을 활용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NUCMMA 장학금과 김태웅, 정병욱, 이유찬 장학생을 선발하고 수여하면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장학 기금관리를 수십 년간 맡아오신 이명희(66) 님의 공을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로 금년에는 서울의 모교 졸업생이 미국 병원에 레지던트Residency 매칭이 11명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동문들이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동창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발생한 고국의 의료계 정책 변화로 더 많은 수가 앞으로 미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지난 4월호에도 미국 병원에 매칭된 7명을 소개했고 이번 시계탑에도 4명의 동문을 추가로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모교 후배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마다 더 많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졸업 후 20년 내)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돋자는 서인석(73, 전 43대 동창회장) 동문의 노력을 상기시킵니다.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들은 이런 젊은 세대도 포함하여 Scientific CME와 Non CME 양 분야의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다음 학술대회를 계획할 것입니다. 추후 그 진행과정을 지면을 통하여 국내외 동문 여러분들께 적시에 수시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글: 서윤석

37차-2021년 미주서울의대 동창회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김성환, 김영애, 박종철, 신규호, 서윤석

### 다음 대의원회를 위한 공고



2020년 10월 10일(토) 이사회(화상회의)에서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 제50대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에 현 49대 안우성 회장이 추천되어서 만장일치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칙에 의하여 이 결과를 대의원회에 공고하는 바입니다.

이사회원 일동

안우성 회장



이준구 (2008졸):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MA-Internal Medicine

저는 2008년 졸업 후 모교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전공의 수련을,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에서 암유전체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를 퇴국한 이후 어느덧 거의 7년간을 진료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임상 방면으로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지침 정립(2014 JAMA), 약제 내성 기전 규명 및 특이적 바이오마커 발굴(2017 JCO), 최근에는 비흡연자 폐암 발생의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전좌(translocation)의 기전을 규명하였습니다 (2019 Cell).

본래 full-time scientist로 faculty position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진료실에서 출발한 제 과학의 특성상 환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들의 병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암 분야를 통해 알게 된 많은 선생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이번 매치에 도전하였고, 1순위로 지망한 BWH에 매칭되었습니다. 지금 제 오피스 바로 옆 건물이 BWH이고, 지난 3년간 출퇴근길에 늘 그 복도를 걸었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종양내과 분야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치료를 개발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김지혜, 신상하 (2018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Internal Medicine



안녕하십니까? 오랜 준비 끝에 미국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된 신상하, 김지혜 부부입니다. 둘 다 학부를 미국에서 졸업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러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오신 선배님들의 강연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 들으면서 꿈을 키웠고, 특히 MEXIM 동아리 회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도 자주 참여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부딪혀 보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준비할 때도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하금까지 세세히 마련해주신 것을 보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먼저 미국에 가신 선배들께서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힘도 합쳐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커플 매치에 성공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겠지만,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레지던트 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지영 (2019졸): UPMC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PA-Pediatrics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졸업생 이지영입니다. 의료 봉사와 국제 보건에 관심이 많던 차에 본과 4학년 때 미주의대동창회 Green Project 후원으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미국의 의료 환경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배움에의 열정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도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것에 대해 우선 자격을 갖추고 고민을 해보자는 계획으로 재학생 때 USMLE Step 1, 2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국가고시를 치르고 졸업 직전에 소아과 실습을 UPMC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로 다녀온 후 여기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USMLE Step 3와 긴 매칭 시즌을 지나 소아과 전공의로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꿈같이 주어졌습니다. 제 도전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관문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미주동창회에도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차 이사회 초록

2020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Cisco WebEx 화상회의



## 서부 화상회의 참가자:

김태웅(63) 이건일(68) 김성환(71) 이원택(71) 안우성(76) 김동훈(77) 차민영(82)  
김자성(85) 김영애(Mrs. 김성환)

## 동부 화상회의 참가자:

임종식(57) 이만택(58) 이명희(66) 최순재(66) 최영자(66) 주광국(68) 서윤석(68)  
강창홍(71) 이성길(71) 서인석(73) 이선희(81) 서귀숙(84) 강민종(91) 박종철(99)  
임경빈(99) 송경민(09) 제이미 사무장

## Proxy: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김일영(71) 정균희(72) 고용규(73)  
문대옥(73) 심완섭(73) 전경배(75) 한민우(75) 최광희(79) 남명호(81) 이선규(89)

1. 2020년 10월 10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서부시간 정오 낮 12시)에 Cisco WebEx를 통한 화상회의로 제1차 이사회를 시작함.

2. 2020년 1월 11일에 가졌던 1차 대의원회 초록을 검토하고 참가자 전원 이의 없이 동의가 되어 이사회 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 3. 안우성 회장의 인사말: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시계탑과 website 활동으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원들이 소통을 하며 화목을 도모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lock down이 시작되어 예정했던 37차 학술대회도 열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겨울을 지나 내년 봄이 되어서 다음 학술대회를 열 것인가, 언제 열 것인가 등을 예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화상회의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의 건강이므로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모든 회의를 대신 할 예정입니다. 중요사항은 email로 교신을 하고 필요한 안건은 화상회의에서 논의,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원고와 꾸준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4. 화상회의 참석자들 간의 소개:

온라인에 화상을 통하여 만남에 반가운 인사말이 이어졌다.

## 5. Nominating committee (71 이성길 chair) 보고:

- By Law에 따라서 지난 회기 4명의 회장단과 4명의 Regional president로 구성이 되었다. 이성길(71) chair, 정균희(72), 한승신(76), 이건일(68), 차민영(82) 남가주 지부 회장, 한민우(75) 대뉴욕지부 회장, 서윤석(68) 버지니아 지부 회장, 문대옥(73).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다 맞추는데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 한계를 느꼈다.

- Nominating committee member들이 2021-2022 회기의 새 회장으로 안우성 현 회장을 추천하는데 모두 의견을 같았고, 2023년의 회장으로는 새 회장님의 남명호(81) 동문을 추천해 줄 것을 이성길 Nominating chair가 건의하였으나 이는 차기 회장의 뜻이라고 밝혔다.

- 현 회기의 안우성 회장이 다음 회기 회장으로 연임되었음에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었다.

- 이성길 전회장에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힘든 해결을 해야 하였던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특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예약한 호텔의 취소를 무난히 풀어나간 점 등 감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 10명의 새 이사진 선출은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 6. Treasurer (85 김자성) 보고:

- 2020년 7월 1일에서 10월 7일까지의 은행 잔고 액수와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 7. Fund Management committee (66 이명희 chair)의 보고:

a. 지난 회기(이성길 회기)에서 \$10,000을 추가로 받은 것과 AXA에서 받은 \$22,813에서 \$20,000 장학금을 동창회로 지불한 나머지가 Bluerock Growth Reit에 투자되었다. 이는 4년 후 원금 상환 조건임.

b. 수년간 투자를 하고 있는 AXA의 분기별 이자는 \$17,109(\$5,703을 3회) 받았으며, 별도 투자를 한 \$50,000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이자가 동창회 은행 구좌로 보내왔던 것이 COVID19 영향으로 전체적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음 달 초에는 받는 이자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세무 보고와 실제의 재무 관계는 학술대회 일정에 따라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 8. Scholarship committee (91 강민종) 보고:

강민종(91) chair, 이선희(81) Co-chair, 서인석(73), 김태곤(15), 조수정(17), 이익재(20) 등이 모든 안건에 대하여 email과 Zoom을 통하여 의논하였다.

a. 김태웅 장학금에 대한 설명: 매년 \$10,000를 김태웅 장학금으로 받고 있고, 미주 교포 자녀에게 \$2,500씩 두 명에게 수여가 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교 혹은 대학원생으로 해 왔는데, SNUCM의 학생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고르기 힘든 관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부터 미주 교포 자녀 두 명(동부와 서부 각 한 명씩,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3,000씩 주기로 되었다. 이에 맞추어 SNUCMAA 장학생에 대하여서도 \$2,000씩 수여되던 것을 \$2,500으로 늘린 액수로 지불이 결정이 되었음을 다시 상기하여 보고되었음.

b. 이유찬(64) 부부의 이름의 장학금이 지난 해 처음 \$5,000을 받았음과 정병욱 fund에 대한 내력도 보고함.

c. Scholarship committee Future pla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reen Project committee 임경빈 GP chair(99)와의 교류 증진 / Generation of future leaders Committee's interaction with donors and SNUCM crucial / 동창회의 지원 영역을 더 넓힌 것인가 등.

d. 한국일보를 이용하여 미주 세 지역(남가주,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에 광고를 했고, 신청은 동창회 Website의 서류를 올려서 email로 받았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평소보다는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신청하였으나, 모든 신청자의 자격이 높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았다.

- 심사과정을 상세히 PPT로 제시하며 보고가 되었고, 장학금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김태웅 장학생 2명, 이유찬 장학생 2명, SNUCMAA 장학생 4명이 선발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음.

## 9. Publication committee (68 서윤석 chair) 보고:

a. COVID19 위험 속에서도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시계탑 발행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봄에 한국 파주에서 인쇄를 한 시계탑 문집 6호는 총 1,230부를 발행하여 서울동창회에 90부 그리고 미주 동창회 회원 모두에게 배부가 되고 현재 88부가 남았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별도 연락을 바란다.

b. 근래에 시계탑을 받으시고 여러 동문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받고 있고, 친조금까지 보내주시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

c. 편집위원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서귀숙(84) 편집위원과 황창근 인쇄소 사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d. Website의 주광국(68), 송경민(09) 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으로 동창회원들께 소식을 전하고 있다. snucmaaus.org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의 시계탑을 열람할 수 있고, 새로운 소식 또한 접할 수 있다.

## 10. Advisory and Exchange committee (58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보고:

그 동안 미주재단은 14 million을 모금하였고 그 중 2.8 million을 투자 운용하고 있다. 매년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수여해 왔고, 2020년 지급한 장학금(총액 \$65,000)의 내용과 2021년도 기부를 약정하신 내용을 보고함.

## 11.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보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장애인동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재개장이 되는대로 활동 상황을 알려 오겠다고 하였다. 꾸준한 회원들의 지원 요청이 있었음.

## 12. 안우성 차기회장(2021-2022)의 수락 인사말:

이사회에서 선출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하였고, 힘든 현 상황을 잘 견디어 동창회가 지향하는 모든 것에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응원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지원금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고 이운순(58)동문 부인 고애자 여사 동창회 기금 5천달러 기부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20대 회장을 역임하신 고 이운순(58) 동문의 부인 고애자 여사께서 이 동문의 별세 이후 시계탑에 조문 기사와 많은 동문들의 조의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동창회 기금으로 \$5,000를 보내오셨습니다. 사진: 고 이운순 동문과 부인 고애자 여사

## 임윤명(68) 동문 국민포상 수상

Toledo, Ohio에서 20년간 재활의학을 전공하던 임윤명(68) 동문이 금년 7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에 기여한 지대한 공으로 국민포상을 수상했다.

임 동문은 25대 김기태 회장 회기의 총무로 활약하다가 당시 학회에 참가한 이길녀 가천대학교 이사장님의 요청으로 1999년에 귀국하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신생과목이었던 대한민국 재활의학계에 공헌했다. 이 대학교에서 명예 교수로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은퇴했다. 은퇴를 하자마자 그는 250 병상의 한국 최초의 재활병원인 최신 시설을 갖춘 인천에 위치한 경기도 적십자사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으로 7-8년간 명성을 날렸다. 이 병원은 환자가 의사에 앉은 자세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만든 세계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고 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이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주관한 전 세계장애인 올림픽대회를 위해서도 기여했다. 정년으로 은퇴를 시도하였으나 곧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계의 요청으로 푸르메재단에서 희망하던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임동문이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이 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봉사하다가 몇 달 전에 은퇴를 하였는데 뜻밖에 지난 20년간 기여한 재활의학계에 남긴 공으로 학계에서 추천되어 영예의 국민포상을 받게 된 것이다. 사진: 수상식에서 임윤명 동문 부부



## 정경은 동문 (02 졸업, 신생아학)

Saint Elizabeth's Medical Cente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Grand Canyon National Park, AZ, 2015

###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모교 병원에서 각 과 전공의 중 매년 10명 정도를 선발하여 단기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 전공의 4년차이던 2006년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한 달간 연수하며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서 정착한다는 것에 대한 결심이 온전히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신생아학 펠로우쉽 수련까지 마친 후 1년간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레지던시 매칭을 준비하여 2009년에 미국에서의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 한국과 미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비교한다면요?

제가 한국에서 수련 받던 때에는 전공의 근무 시간에 관한 개념도 규정도 없었습니다.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었고, 당직도 솔직하게 했지요. 소아청소년과는 1년차 당직은 물론이고,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는 2년차때 당직이 더 많아 하루 건너 한 번 꼴로 당직을 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하면 미국에서의 수련은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생아학을 전문 분야로 택하였기에 어텐션이 된 지금도 밤 당직이 있고,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 밤 근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당직 후 다음날 피로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수평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이곳 병원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병원 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 주창준(56) 동문 별세

로드 아일랜드에서 거주하시던 주창준(정신과 전문의)께서 지난해 10월 29일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200 수표와 함께 미망인께서 보내오셨습니다.

### 류치열(58) 동문 부인 정신 여사 별세

조지아에 거주하시는 류치열(58) 동문의 부인 정신 여사께서 오랜 숙환으로 7월 16일 영민 하시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박병학(63) 동문 별세

63년 동기 중 가장 연세가 많은(90세) 박병학 동문께서 플로리다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8월 14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화장 후 가족장으로 치루었습니다.

### 이재영(64) 동문 별세

동기 이재영(64)이 지난 10월 3일 숙환으로 작고했습니다. Dr. Lee는 Nuclear Medicine Specialist로 그동안 미시건과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뉴저지에서 2년쯤 살다가 최근 그의 아들이 사는 보스톤 근처로 이사 간 지 두 달 되었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허선행)

### 노갑준(79)동문 별세

시카고에서 신장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노갑준(79) 동문께서 지난 6월 27일 별세했습니다. 노 동문은 시카고 지역 동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례건강 검진에 자원 봉사를 해 왔으며 또한 한인 입양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고국의 문화를 접하게 하기 위해 고국방문 행사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부인 홍금아, 장녀 재인, 차녀 진이.

### 3. 소아과학 중에서도 신생아 중환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요?

모교 병원에서 전공의 2년차로 일하고 있을 때, 임신 26주차에 몸무게 430g으로 태어난 아기의 주치의로 근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호흡기(ventilator)와 중심 정맥 삶관을 끼게 되고, 아기가 몸무게도 늘고 건강히 자라서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 있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팀이 병원에서 백일 잔치까지 열어주었지요. 그렇게 매우 잘 자란 작은 아기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생아학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위중한 아이들이나 'perivable'이라고 부르는 너무 작고 어린, 태어나자마자 생사가 오가는 아기들을 많이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생아학은 중환자도 많고 밤낮 구분이 없는 어려운 전공입니다. 미국에서 전공의 과정을 다시 밟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세부전공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고민했었는데, 결국 미국에서도 신생아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 4. 코비드 판데믹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신가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다 보니 제 근무 스케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비드는 주로 성인 환자들이 많았으니까요. 다만, 연구 관련 회의나 강의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화상 회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본 신생아들은 산모가 COVID-19 양성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음성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4-5월에 COVID-19 환자가 많았는데, 아마도 지역내 병원간 의료자원 최적화를 위한 움직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Ventilator가 필요 없는 후기 조산아들을 보는 Level 2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에서 성인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상당수의 산모와 신생아들을 저희 같은 Level 3-4 신생아 중환자실(고위험 분만, 가장 작은 조산아들의 호흡기 치료 등을 모두 담당하는 레벨)이 있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 5. 나만의 보스턴을 소개해주세요.

Jamaica Pond에 자주 가는데, 잔잔한 호숫가에서 산책하기 좋고 넓은 잔디밭도 바로 옆에 있어 아름답습니다. Blue Bottle Coffee는 푸르덴셜 빌딩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두 지점에 다 가보았는데, 푸르덴셜에 있는 커피숍이 더 넓고 쾌적합니다. Crane Beach도 제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North Shore (Ipswich, MA)에 있어서 보스턴 시내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백사장도 넓고 한여름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용해서 좋아합니다. Charles River Esplanade도 강변을 산책하거나 조깅하기 좋은 곳이라 추천합니다. 강 건너 보이는 풍경도 좋고, 북적이지 않을 때 간다면 정말 멋진 곳입니다.

### 6. 풍경 사진 촬영 취미가 있으신데, 언제부터 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나요?

미국에 오면서 인터뷰나 학회, 여행 등으로 면 곳들을 다니면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진 찍는 것은 완전히 아마추어입니다. 좋은 사진기는 없고, 소니 디지털 카메라나 셀폰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출, 일몰이나 풍경 사진을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Crane Beach 등 주변 바닷가에 많이 갔었는데, 관데믹 이후로는 집과 직장 사이 말고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 7. 가장 좋았던 여행지나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2019년 성탄절 전 휴가 때 방문했던 플로리다의 Key West였습니다. 바다 색깔도 너무나 예쁘고, 드라이브하는 길에 도로가 바다 위에 띠있는 듯한 풍경이 근사했습니다. 헤밍웨이가 살던 집도 볼 만 했어요. 서부의 Yosemite National Park도 인상깊었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스릴 넘치는 드라이브를 했는데, 세상에, 절벽과 도로 사이가 완전히 오픈된 곳도 많더군요. 앞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Iceland입니다. 레지던트 때 Iceland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수려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들었고, 사진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싶고, 오로라도 보고 싶습니다.



Yosemite National Park, CA, 2019

### 8.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미국에 비이민 비자(J-1)로 왔는데, 2년 본국 귀국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visa waiver가 가능한 곳에 취업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고, 실제로 웨이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까지 몇 년이 걸려서 너무나 힘들었습

니다. 요즘 닭볶음탕, 간풍치킨 등 이전에 해보지 않은 메뉴를 요리해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다 좋아합니다. 인터넷에 레시피가 많이 있어서 참고하는 편이고, '만 개의 레시피' 같은 사이트는 같은 요리도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적당한 것을 골라 요리합니다.

### 9. 학창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학생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중 의대 합창단에 속해 있어서 연주회 연습 일정에 바빠고, 해부학 교실에서 면역학 관련 실험을 배운다고 방학 내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본과 3학년 때 친구들과 한 대기업이 후원하는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약 2주일간 영국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호스피스 병동과 독립 시설들, 아동 호스피스 시설을 돌아보았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혹은 미주동창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후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남편과 함께 같이 일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직장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자 웨이버가 끝나면 좀 더 연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아주 일찍 태어난 신생아들의 장기 예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경발달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혈압, 비만, 당뇨, 대사 증후군 등의 cardiometabolic outcome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후 예측 인자를 찾는 것, 연구비 등의 이야기들은 하자면 끝이 없고요.

후배들을 위해 조언하자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거나 subinternship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과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 힘들겁니다.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이상 미국에 머무는 것이 처음이었던 2006년 단기 연수 때 처음 봤던 이광선 선생님,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좌절하던 때에 격려해주셨던 남영재 선생님과 김태곤 선생님, 박종철 선생님 등 저도 선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 고 박병학(63) 선배님을 추모하며



박 선생님은 금년 90세로 올란도에 은퇴해 사시다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 미세스 박의 전언에 의하면 마지막을 조용히 영면하셨다고 한다. 벤 박께서 나를 버펄로에서부터 특별히 귀여워 주시고 아껴주셨고 그리고 올란도에서 더 10여 년간 내 개인의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봤 것은 선생님께서 버펄로 뉴욕 주립대학의 소아과 교수로 오셨을 때였는데 선생님은 그 모임에서 연미복에 나비넥타이를 하고 나오셨다. 선생님은 멋을 아시는 신사이실 뿐만 아니라 박식하신 데도 늘 겸손하셨다. 뒤에 나오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좌우명을 평소에도 늘 지키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올란도로 은퇴를 한 뒤에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는데 특히 부인께서 훌륭한 요리솜씨로 자주 초대를 해주셔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도 선생님께 일조를 해드린 것이 있는데 버펄로에 오셨을 때 여름 동창 모임에서 선생님께 처음 골프채를 잡으시도록 해드린 일이다. 올란도에 사시는 동안 어느 해인가는 일 년 중에 300일 정도는 골프를 즐기셨다고 한다. 대단한 집념이시었다.

선생님은 의학 전반에 관한 지식은 물론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유교, 불교 그리고 특히 도가 사상에도 심취하셔서 옆에 있으면 나 자신의 내면에서도 삶이 찌는듯한 풍요로움을 느끼곤 했다.

#### 선생님께서 늘 즐겨 쓰시던 경구:

Carpe diem / Memento mori hodie mihi, cras tibi

오늘을 허비하지말고 소중히 보내라

죽음을 염두에두라.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는.

글: 이중오(64) Virginia에서 2020년 9월초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또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최용성 (61) 선배님



1. 1961년 졸업하고 서울의대 병원에서 하는 인턴이나 졸업 후 가는 군의관으로 안 가고 대신 논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1년간 근무하고 졸업 후 유학했다. 1962년에 100불을 소지하고 Minneapolis에 도착, 일주일 후에 대학기숙사에 들어가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

2. Minnesota 의대도서관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났는데 인연이 되려니까 대학원 수업과 실험에 무척 바쁜중에도 자동차도 없이 4년을 데이트하고 소아과 레지던트가 되어서 결혼 지금 까지 54년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

했으며 지금도 같이 크고 있다.  
3. 의사가 되겠다는 큰 포부는 없었고 중고등학교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첫째로 고3때 당시 서울공대에 다니던 선양래 수학선생이 새로 생긴 광주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서울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없었다고 말씀 하셔서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2 자망도 없이 입학시험을 치렀다. 6.25 전쟁 후 광주서중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광주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둘째로는 서울의대 1회(전시에 부산)에서 졸업한 숙부가 권유했다.

4. Minnesota 의과대학의 생화학교실의 Graduate advisor, Charles Carr 교수 가 연구제목, Calcium Binding Studies of RNA을 지정해서 실험이 잘 진행되어서 3년만에 Ph.D를 받고 한 달 후에 Minnesota 의과대학병원에서 소

아과 인턴과 레지던트 임상경험을 하면서 어린이와 미숙아 치료에 재미를 느꼈다. 무엇보다도 Clinical Training 중에 Dr. Robert A. Good을 만나서 면역학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이 분야에 여생을 보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것이다.

6. 의과대학 시절에는 전국에서 온 수재들과 경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바빠서 연애할 기회가 없었다.

7. 다시 태어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8. N/A

9. 취미와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 맞게 해왔다. 젊었을 때(50세-70세)에는 Bird watching and Photography, Hiking mountains and Prairie to view wild flowers. 늙어서는 (70-80)

Traveling, Walking, Reading.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는 기계체조 팀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3부터, 의과대학, 대학원, Clinical Training, Postdoctoral training 기간인 15년 동안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전혀 못했다. 1969년 Minnesota 의과대학 조교수 때 서울의대 선배 임수덕 교수를 만나서 테니스를 시작했고 스키를 20여 년간 타다가 무릎의 ACL을 다쳤으나 수술을 안하고 Running을 매일 아침 십여년 간 하다가 차츰 허리가 아파져서 수술하게 되었다. 수영을 매주 2-3번씩 지난 20여년간 해 왔다.

10. 시계탑이 근래에 많이 좋아졌다. 편집위원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여러 동문들의 귀한 경험담이 시계탑에 실리면 좋겠다.

1955년 광주 촌놈이 서울 의대에 지망해서 합격되어 입학하게 되었다. 그 때는 큰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이다. 문과보다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 것은 사실이다. 의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의예과에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서울대 영문과에 다니던 김우창(고려대학 교수)과 친하게 지내면서 영어도 배울겸 영문 고전을 많이 읽었다.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교수는 미생물학교실 이승훈 교수이다. 그 당시 교수들은 수업에서 강의만 하였다. 이후 임상 외과 교수의 권유로 수술실에도 들어가 보았으나 여서시간 남짓의 긴 관찰 결과 외과는 손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고 외과는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 의과 4년 때 미네소타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온 Dr. Gault를 알게 되어 졸업 후에 미네소타 대학 대학원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를 위해 3년간 군의관과 대학병원 인턴을 안하고 논산에 가서 1년 사병으로 군복무하고 유학 제대해서 미국으로 바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Dr. Gault의 소개로 미네소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Dr. Charles Carr 교수 아래에서 graduate student fellowship를 받아 입학하였다. 서울대에서 배운 것이 있어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았다. 인상에 남는 수업은 Cyrus Barnam 교수의 Nucleic acid 클래스다. Barnam 교수는 강의에서 최근 발표된 reference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후에 내가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수업은 Paul Boyer 교수의 enzyme 클래스다. Boyer 교수는 그 당시 이미 enzyme 잡지의 editor여서 enzyme에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자세히 리뷰하면서 수업하였다. 그의 연구하는 태도와 생각을 배우고 실험하게 되었다. Boyer 교수는 그 20년 후에 ATP 연구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수업 이후 시간에는 실험에만 매진 하였더니 실험이 잘 진전되어 대학원 시작한 지 2년에 M.S. 논문이 완성되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 Ph.D 논문을 준비하는데 당시 Microbiology minor advisor, Palmer Roger 교수로부터 논문 작성법을 배워 대학원을 3년만인 1965년에 Ph.D를 받고 졸업했다. 논문은

그 당시 새로 나온 Journal of Molecular Biology에 출판되었으며, 이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실험 중에 우연히 streptomycin이 ribosome aggregation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해서 대답하게 Nature에 보냈더니 수락되어 나의 졸업 연구가 탑 저널에 발표되었다. 대학원 연구는 잘 진행되었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했고 의과대학에 온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경험도 포기 할 수 없어 짧은 기간이라도 레지던트를 하기로 결

심하고 미네소타 소아과 레지던트 포지션에 지원했다. 미네소타 대학병원은 경쟁이 대단히 심하였지만 운이 좋아 selection committee chairman, Dr. Joseph St. Geme 덕택으로 선택되었다. Dr. St. Geme은 우연히 나의 Ph.D 세미나에 들려서 좋은 인상을 받아 나를 뽑은 것이었다. 임상 수련은 같이 수련 받는 미국 명문대 출신들에 비해 힘들게 느껴졌으나 1년이 지나니 대부분 어려운 병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었고 Children's Hospital에서 만난 Dr. Martha Strickland로부터 미숙아와 신생아 관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재미있었다. 더욱이 그 시절 알게 된 Dr. Robert A. Good은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40여세의 Dr. Good은 thymus function을 처음으로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Clinical investigator였으며 나는 그의 임상 면역학의 깊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레지던트가 끝나면 Dr. Robert A. Good 연구실에서 fellowship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생화학 배경지식이 짧아 나를 수련하지는 못하나 내가 미국 어디든 연구소를 선택하여 6개월간 수련하는데 대한 support를 제안하였다. 참으로 솔직한 mentor이다. 나는 대학원에서 생화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면역학적 문제를 생화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Salk Institute의 Paul Knopf 아래에서 1967년 레지던트가 끝난 한 달 후부터 post-doc training을 시작했다. Paul Knopf은 MIT에서 Ph.D를 하고 Johns Hopkins에서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은 폴리펩이라는 사실을 발표해서 reference에서 알게 되었다. Dr. Knopf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Francis Crick의 연구실에서 2년간 수련하고 Salk institute의 Dr. Edwin Lennox 실험실에서 Junior faculty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연구했던 주제는 mouse myeloma cell에서 immunoglobulin synthesis 및 secretion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biochemical events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mammalian cell의 subcellular fractionation 해야 하는데

그 당시 Journal of Molecular Biology에 liver cell fractionation paper가 발표된 것을 보고 저자인 Gunther Blobel이 샌디에고를 방문했을 때 만나보고 알게 되어 myeloid cell subcellular fractionation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Gunther Blobel은 20년 후에 Cell biology 분야에서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다. 다음 주제는 immunoglobulin이 신생되어 세포 안에 subcellular fractionation을 거쳐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과 관련 있는 biochemical event의 연구에 진전이 있어 Gordon conference에서도 발표되어 후에 노벨상을 탄 Dr. George Palade도 만났다. 6개월을 계획하고 갔던 Salk Institute에서 일이 잘되어 2년 반 동안 머물게 되었으며 Dr. Knopf와 Dr. Lennox로부터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과학적 글쓰기에 대해 많이 배웠다. Dr. Knopf는 5년 뒤에 Brown University 교수가 되었고, Dr. Lennox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교수가 되었으며,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던 Fritz Melcher는 모국인 독일로 돌아가 Basel Institute에 President가 되어 각각의 연구의 길로 갔다. 나 또한 1969년 미네소타 의과대학 소아과 조교수로 임명되어 Dr. Good가 옛날에 쓴 연구실을 개조해서 실험 준비를 했다. 임명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Dr. Good이 NIH special fellowship를 apply하라고 권했다. 조교수 임명은 받았으나 대학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고 밖에서 경쟁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놀랬지만 이 권고가 내 일평생 연구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Research career를 대학에서 추구하려면 연구기금을 밖

에서 가져와야 자립해서 살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NIH에 처음으로 grant를 신청했더니 fellowship이 나왔고 Dr. Good의 추천으로 전국에서 10명을 선발하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faculty research award와 NIH의 career development award를 받아서 5년 동안 독립해서 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직장을 옮긴 뒤에도 은퇴할 때까지 45년 동안 NCI에서 grant를 신청,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Dr. Good은 조교인 Max Cooper와 함께 lymphocyte는 혈연히 다른 B cell과 T cell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human bone marrow transplant로 immunodeficiency disease를 처음으로 치료해서 Albert Lasker Award 등 10여 개의 medical award를 받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을 비롯 여러 명문 대학에서 면역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중요하다고 강연을 하여 신문에도 나기 시작하고, 닉슨 대통령의 암 정책 adviser 세 명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1972년에는 뉴욕에 있는 Sloan 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에 president가 되어 미네소타를 떠났다. 나도 Dr. Good이 권유해서 1973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1년 만에 Cornell 의과대학 정교수로 발령받아 새로운 연구실을 짓고 옮겼다. 다음 해 Dr. Good은 NCI에서 자동적으로 받아준 funding mechanism을 다른 대학처럼 competitive grant로 변경하고 7개의 연구 분야로 개편해서 나는 면역학 분야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10여 명의 짧은 면역학자를 모아서 immunology research program grant를 제안해서 리뷰를 받아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grant를 받았다. 별도로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research grant를 10년간 받게 되었다. 연구주제는 T cell receptor를 생화학적으로 밝히는 일이었다. 실험 모델로 B cell이 없는 chicken을 써서 연구를 한다는 나의 제안에 리뷰어가 전국에서 최고의 score를 주어서 열심히 일했지만 T cell receptor는 찾지 못하였다.

12년 동안 Sloan Kettering Institute에 일하는 동안 내 월급과 연구비는 전부 나의 grant로 충당했고 SKI에서 받은 돈은 없었다. 뉴욕 나의 연구실에서 30여 명의 Ph.D가 (다음면에 계속)

## 나의 소중한 인연들

최용성 (61), 루이지애나





## 비물의 방향

허선행 (64, 대뉴욕)

산소와 물, 물과 산소, 따지고 보면 물이 산소의 원천인데 우리들은 이 물의 위력을 못 느끼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본다. 우선 물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이나 온 생물체도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빗나가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 적어 본다면, 예민하게도 나는 몇 10년 동안 수돗물은 아예 안 마시고(몇 가지 이유는 생략) 안전하다는 병물을 골라 마셔오다 보니, 병물 중에서도 수십 가지가 있다. 알프스 산 바위 사이로 스며 나오는 물, 태평양 바다 밑바닥 지하층에서 끓어 올린 물, Maine 주의 풍성한 샘물, 아니면 증류수 등등이 시장에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달래주고 근본적으로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음식을 만들 때 (cooking) 누구나 병물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salad를 시

킬 때는 무슨 물로 씻었는지를 확인하고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여행 중에는).

US Open Tennis 경기 중에 선수들이 마시는 물의 상표를 볼 때마다 나도 저 물을 마셔서 저들처럼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린이 같은 생각도 해봤지만 우선 우리 몸속에도 체중의 60-65% 정도의 수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마셔야 하는 물도 그 값을 단단히 치러야 하니 최소한도 낭비는 안 해야 하겠고 이 교훈 중의 한 예로는, 미국의 어떤 주(state)에는 자기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도 모아서 자기 물로 쓰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으니 빗물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자연과 온 주민의 공동 소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물이 귀한 주(state)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지구 안팎에 있는 3억 3천만 cubic miles의 물량,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물이 있는데 이중의 97.5%는 바닷물(짠물, 염도는 무게로 3.5% 안팎)이고, 나머지 2.5%가 민물이라는데 이 민물의 대 부분도 얼음(빙산)이 차지하고 있어서 민물의 0.04% 아니면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0.001%가 대기에

있으면서 비로 둔갑해서 우리와 거의 모든 생물을 잘 살려왔다고 본다.

이렇게 우리가 빗방울에 의존해 사는데 이 빗방울의 모임이 때로는 화가 난 듯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으니 이 중의 하나가 바로 태풍(storm and hurricane)이다.

태풍은 거의 다 바다에서 시작되는데, 바닷물의 온도와 증발로 이루어 지는 저기압의 형성이 그 원인으로 이 태풍이 그 크고 넓은 바다에만 있지 않고 육지로 들어와서 물난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의 몽상이 아니길 바라면서, 어떻게 이 태풍의 방향을 바꾸고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긍정적인 연구에 희망을 갖자고 생각해 왔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태풍의 방향을 조종하고 그 강도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지구상의 그 넓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며 심한 가뭄도 없애고 최근에 종종 있던 그리고 아직도 불타고 있는 California 주의 거대한 산불 같은 것도 쉽게 끌 수 있지 않을까도 또 상상해 보면서, 이 자연 현상을 못 이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빗방울을 이겨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한다.

*Harbor에서 만나 이후 10여 년간 collaboration 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mouse xenograft model에서 8D6 중화 항체가 human lymphoma formation을 억제했다.*

이렇게 New Orleans에 있는 작은 연구실에서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니 영국 면역학회 잡지 Immunology editor가 FDC 리뷰를 하라고 요청이 왔고 2000년 출판되었다 이는 Journal의 표지 그림으로 선정되어서 기쁨을 주었다. 내용은 박찬식 (아산병원 교수), 그림은 새로 도착한 윤선옥 (유틸렉스)이 그렸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02년에 National Cancer Institute(NCI)의 요청으로 tumor microenvironment workshop을 organize하게 되었고 전국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워싱톤 DC에서 회의하고 NCI에서 tumor microenvironment 분야가 창설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암 연구는 암세포 자체를 주제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해 왔는데 이제는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조직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가 시작되었다.

1961년 의대 졸업 후에 나의 생애를 보면 의대에 합격해서 전국에 다른 우수한 수재들과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연구에 흥미가 생겨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나 자신의 능력보다 인복이 있어 훌륭한 선배 학자와 후배들을 만난 혜택으로 생각한다.

서울 의대에서 계속 남았으면 국제적 인정을 받는 학자가 되었을까? 내 동기생도 나와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서울의대는 다른 의대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배출하지만 graduate education이나 medical research career를 배출하는 academic institute는 아니다. 모교를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느낀 것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학박사는 나오지 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전면에서〉 나의 post-doctoral fellow로 수련하고 60여 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때 옆방에서 연구하던 Osaka 의과대학에서 온 Tadaitsu Kishimoto는 나와는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각별히 지냈으나 B cell differentiation factor 등을 Nature에 발표한 다음 일본에 돌아갔다. 이후 IL-6와 receptor를 밝히게 되고 후에 Osaka 의과대학 총장이 되었으며 일본 면역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1992년에는 나를 Osaka 의과대학 국비 교수로 초청하여 나는 Hotoshi Kikutani와 3개월을 보내면서 stromal cell differentiation factor를 클로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또 그 기회에 교토 대학의 T. Honjo도 만나보았다.

1980년에는 Ochsner Clinic Foundation에서 immunology investigator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다. Ochsner Clinic Foundation은 뉴올리언스에서 알려져 있지만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Search committee에 Dr. Richard Re가 방문해서 인터뷰하자 하여 당시 Ochsner Clinic Foundation의 대표 Dr. George Porter의 Clinic director, Dr. Frank Reddick이 연구비와 월급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포지션을 제안했다. 이제는 Dr. Good의 그늘을 떠나서 나 자신 독자적인 research program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1985년 Distinguished Investigator로 임명되어 옮겼다. 3년 후에는 fund raising에 직접 참여해서 15 밀리언을 기부 받아 새로운 리서치 빌딩을 짓고 실험실은 내가 건축가와 함께 설계하였다.

연구 포커스는 Human B cell differentiation 이었다. 상하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Xing Xia와 이현구 (전북대 의대교수)와 함께 인터루킨 기능을 연구하여 5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Human tonsil을 써서 germinal center B cell differentiation을 연구하려면 in vitro experimental model을 만들어야 했

## 생각하는 숲

서윤석(68, 버지니아)

아침에 생명의 소리를 낸다

재잘거리는 새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풀과 나무와 사슴과 토끼가 함께 사는 소리

부족한 삶을 도와주는 숲

미미한 풀벌레들에게도

외로움으로 찾아온 어른들에게도

숨차게 달려오르는 아이들에게도

휘영청 보름달이

검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면

밤의 숲은 '의아하 의아하'하며 소리내어 웃는다

그리고 낮과 밤의 무게를 견주어본다

숲은 자유로운 마을이다

피와 살을 나누는 생명들의 고향이다

얽히고 섞이고 웃을 스치면서

모두들 무력무력 자라는 마을이다

귀뚜라미 노래하는 가을이 오면

갈색, 붉은 옷으로 갈아 입는다

땀 흘려 거둔 열매를 새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불꽃놀이를 하며 솟아 오르는 환희歡喜를 느낀다

오! 그러다가 축제祝祭가 끝나고

회초리 휘두르는 겨울이 다가오면

숲은 가만히 생각에 잠긴다

가지에 매달린 잎을 하나 둘씩 다 떨군다

대지大地를 따뜻하게 덮어준다

철새들도 사라지고 모두들 동면에 들 때면

숲은 조용히 하얀 눈송이를 받는다

발가벗고 발가벗고

나무들도 추운 겨울을 다시 맞는다

*Thinking Woods*

Youn Seok Seo

The sound of new life arises from the woods.  
Deer, rabbits, and birds start their days,  
and the creek flows between the trees,  
and the grass begins waving for a good morning.

Whoever is in need gets an offering from the woods.  
It can be either a little bug, a visiting elder  
or a jogging child.

When the full moon shows up  
through dark clouds at night,  
the woods make us laugh, "Wu haa, wu haa!"  
and compare the weight of day and night.

Woods are the villages with universal freedom,  
where they share blood and sweat,  
and they connect, mixing and touching each other,  
becoming prosperous.

In autumn, when the crickets sing,  
the woods wear scarlet-tinged clothes,  
and give the crops and seeds to birds,  
enjoying the fire festival with excitement.

When winter approaches  
with a whipping switch  
the woods begin to think calmly.  
The trees drop the leaves  
from their arms, and cover the ground.

When everyone starts to hibernate,  
the woods reach out to the white snow,  
and in nakedness and bold nudity,  
the trees stand against the cold winter.



## 노벨 문학상 (2020년)

徐慈性(68)

며칠 전에 금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루이즈 글릭Louise Gluck이 선정되었다. 작년에 심사위원들의 윤리, 인격 문제로 중지되었던 상이다. 그녀는 Cambridge, Mass.에서 살면서 2017년 현재 Yale 대학교 교수로, 문학계에서 명예로운 상을 많이 받은 시인이다. 아직도 집이 없어서 이번 상금으로 집을 마련한다는 이야기 들었다.



김병오(69) 동문과 나눈 편지와 이수상 시인의 작품 두 편을 소개한다. 1962-2012년에 쓴 작품이 실린 이 작가의 시집(2013년경 출간)에서 내가 보낸 SNOW와 SNOWDROPS 두 편과 그에 대한 답신이다.

### SNOW

Last December: my father and I are going to New York, to the circus. He hold me on his shoulders in the bitter wind: scraps of white paper blow over the railroad ties.

My father liked to stand like this, to hold me so he couldn't see me. I remember staring straight ahead into the world my father saw; I was learning to absorb its emptiness, to heavy snow not falling, whirling around us.

### SNOWDROPS

Do you know when I was, how I lived? You know what despair is; then winter should have meaning for you.

I did not expect to survive, earth suppressing me I didn't expect to waken again, to feel in damp earth my body able to respond again, remembering after so long how to open again in the cold light of earliest spring—

afraid, yes, but among you again crying yes risk joy in the raw wind of the new world.

晚圃 김병오의 답신

慈性 형께  
보내주신 Louise Gluck 詩篇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판데믹 이후 구름이 바뀌는 것 말고는 변화가 없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편의 짧은 詩를 읽어보니 그분의 소질과 경향이 보이는 듯 합니다.

현대 영미시인치고는 드물게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시적 페르소나가 흥미롭습니다.

꾸밈없는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詩情이 Emily Dickinson 계열이라는 평도 이해가 되는군요. 사춘기시절 Anorexia Nervosa를 극복하고 일어선 자전적 시인이기도 하고 신화와 역사에도 해박하다고 합니다. 시적 기교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고독과 상실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장 편의 詩 본론으로 들어가면 문외한이 달을 수 없는 경지로 달아나겠지요. 참고로 류시화譯의 눈풀꽃 'SNOWDROPS'를 보냅니다. 시 'SNOW'도 참 좋군요. 번역시의 한계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晚圃 김병오 드림

서자성의 답신

晚圃님 귀하

"눈"이란 작품이 좋아요. 이 작가의 작품이 한글로 번역된 오늘 보내주신 류시화 번역 "눈풀꽃" 잘 감상했습니다. 봄에 잠시 피는 아네모네(Anemone) 꽃을 뜻하기도 하지요. 이제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녀의 작품이 한글 번역판으로도 나오겠지요.

"SNOW"를 방금 번역해 보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Emily Dickinson 작품과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이 시인의 작품이 더 현실적이고 구절마다 막히지 않고 흐름이 이어지네요. 삶과 죽음, 고뇌, 인생의 밝고 어두운 철학적 깊은 요소가 포함되어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리듬이 살아있고 표현이 정확하고 자신의 체험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라 독자에게 공감을 일으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기대하는 Nobel 문학상 발표 소식에 이번에도 모두들 실망하겠지요? 우리나라 역대 문인들 중에서 서정주 시인을 비롯하여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소설가, 시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향년 92세로 타계한 분으로 많은 문학서적을 집필하고 한국현대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심상 문덕수 시인도 그런 분입니다. 그의 작품인 "우체부" "The Postman" 장시長詩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다 읽고나서 느끼게 된 것은 이분도 이상을 받기에 하나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시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글작품을 영어, 스페인어, 등등 우선 4-5개 국의 외국 언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운 점, 또 어느 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심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면 춥고 눈이 늘 많이 쌓이는 땅, Robert Frost, David Budbill, Emily Dickinson 등 시인들이 많이 탄생한 미국 동북부에서 활동하는 시인 Louise Gluck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 慈性 서윤석

### 눈(雪)

루이즈 글릭作 徐慈性(68)譯

십이월 말: 아빠와 나는  
뉴욕으로 가고 있었지요,  
씨커스를 보려고.  
아빠가 나를 꼭 잡고  
칼바람 속에서 그의 어깨 위에  
나를 앉히고:  
하얀 종이조각들은  
철로 베텀목 위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나를 잡고 서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나를 볼 수 없게.  
기억나요  
나는 앞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아빠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로;  
나는 깨닫고 있었지요,

그 공허함 속으로 몰입하려고,  
큰 눈발은  
그냥 내리는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지요.

### 눈풀꽃

루이즈 글릭 作 류시화 譯

내가 어땠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이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알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등하는 것을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의 삶을 에는 바람속에서.

\* \* \*

앞으로 차츰 이 시인의 작품이 한글로 곧 번역되어 소개될 것이다. 원문으로 된 작품을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쉽게 책방이나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책 사진을 첨부한다.

## 공중보건 정책의 방향

淸奮 문성길 (70, 남가주)

거슬러 올라가 조국 한국에선 한때 전 국민의 영양상태 불량의 원인으로 기생충의 하나인 회충이 문젯거리가 된 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대의 학생들이 파리하고 얼굴에 버짐이 생기고 도무지 힘을 놓쓰는 지경에 이르러 부모, 선생님, 보건당국할 것 없이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생충 전문가들을 비롯 보건 당국자들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충제 복용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선의의 좀 과장된 선전을 함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이겠다. 구충제 비복용 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각종 폐해를 좀 심하게 과장되게 말해 반드시 구충제 복용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위협 아닌 위협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는 구충제 복용을 강제로 실시할 시간에 화장실로 퍼신 하던 이들도 있었음) 어쨌거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무사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충 방역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 한강의 기적 등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현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퇴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과 보건 방역당국자들 간의 불일치함이 간과하기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지해서이기도 하겠고 국민 보건 문제를 너무도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고와 행동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이다.

세계 감염 인구 3천7백만 명의 20%에 해당하는 7백5십만 명의 감염자에 사망자도 21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에

도 대통령이란 사람 왈, “아무것도 아니니 두려워말라!” 하지를 않나 엄연히 ‘감염 전파자’임에도 마스크도 멀대로 벗어버리기 일쑤이며,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수칙을 어기고 활보하며 주위의 조력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위험성을 마구 내던지는 모습은 하루 바삐 선거로 그를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안 지킨다면 겁을 주어서라도 지키게끔 해야 할 일국의 지도자가 솔선해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침 변경까지도 압력을 넣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보도엔 Biden은 코로나 방역에, Trump는 경제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제 강점이라는 건 허울좋은 개살구이듯이 기득 경제적 상위계층(일례로 뉴욕 증권시장 격랑을 걱정하는 계층은 일반 서민들과 거의 상관이 없지 않는가)을 주로 위하는 경제정책이지 정말로 대다수 힘든 국민들을 위한 것(해고로 인해 어린 자식들에게 줄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싱글 맘도 있다는 사실)이 결코 아님은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일 것이다.

지도자의 무릇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능한 한 모든 이들을 화합시킴이지 분열시킴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2020년 10월 6일

###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47권 3호 제1면 회장단 명단 중 1대, 2대 재무 박영준(63)을 박준영(63)으로, 9대 회장 박근수(59)를 박근수(49)로, 17대 총무 홍준호(64)를 홍준호(64)로 바로잡습니다.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의과대학 관련 보고

그간 미주재단은 \$14 million을 모금하였습니다. 그중 \$2.8 million을 미주재단에서 투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년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수여하여 왔으며 2020년도 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장학금 (총액 \$65,000) 김기태 장학금 \$20,000 / 김용재 장학금 \$30,000 / 이만택 장학금 \$5,000 / 차민영 장학금 \$ 10,000 연구기금 (총액 \$ 336,000) / 박영수 바이오정보의학 연구기금 \$130,000 / 김순균 정신과 연구기금 \$ 70,000 / 김순균 부당병원 EMR 연구 기금 \$ 30,000 / 김현 병리학 연구기금 \$ 50,000 / 김기태 병리학 연구기금 \$ 20,000 / 곽노섭- 유인경 미생물학 연구 기금 기금 \$30,000 / 김의신 핵의학 연구기금 \$8,000

2021년도 기부 현황:  
이홍표 동문께서 \$200,000 기부 약정하였습니다. 2020년 \$100,000 2021년

\$100,000 기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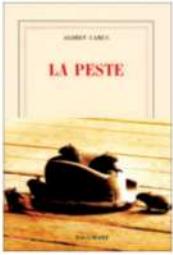
California Menlo Park에 거주하시는 동문 아닌 Han and Annie Kim이 서울대학 병원 정승용 부원장을 위하여 \$ 50,000 기부하였습니다.

1962년도 졸업하시고 2020년 4월 태계하신 조용 동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California Oakland에 거주하시는 Sara Pae께서 \$1,000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기부금은 해부학 교실 학생들의 시체 해부 교육에 사용토록 지정하였습니다. 특기할 것은 해부학 교실에 기부는 재단 설립 후 첫 기부입니다.

미국 내 많은 각 큰 회사에는 Charitable Fund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문 자제분들이 이런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명예를 위하여 재단에 기부하여 주기를 장려합니다. 예로 Qualcomm Co.과 Goldman Sachs에서 기부받은 일이 있습니다.

- 미주재단 이만택 보고



## 카뮈의 '페스트', 바이러스와 인간조건

이 수 인 (63, 남가주)

코비드-19의 출현은 페스트가 훨씬 고간 세기의 연대기나 소설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앤더고리가 실존 상황으로 현실화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Planet을 점령하고 있는 도도한 인간들은 이 큰 도전 앞에 꼼짝없이 격리되어 갇혀 있는 꽂은 초라하다. 자칭 *Homo sapiens*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외친다. 누가 감히 우리의 modern cities를 침범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저자의 말마따나 “unstoppable prosperity”를 외치는 인간들은 영속적인 행복의 행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 먹고 자고 일하다가 예외 없이 죽는 원초적 인간 조건에 걸쳐 그저 스쳐 지나갈 악몽이 아닌 실제로 하는, 잊고 있던 도전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인간들이 거둔 일시적인 승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승리는 오래가지 않고 인간들이 패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묵시적 서술들을 본다.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기도 전에 급속한 변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는 어느 못된 집단에 의한 정치적 bioterrorism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방사선과 의사인 Eric Nataf의 첫 번째 소설 “어느 바이러스의 자서전 (Autobiographie d'un virus)”에선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식능력을 잃게 만들어 인간 멸종을 익모한다.

이 소설은 바이러스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원시적이지만 어떻게 죽음이나 대혼란을 씨뿌리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먼저 생겼고 당신들 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언젠가는 인간의 편을 들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열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AID나 코비드의 출현을 예언한 것 같은 카뮈의 소설 “페스트(La peste)”를 다시 읽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Sartre의 대표적 소설 “구역질(La nausée)”은 그의 철학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읽기가 어렵고 건조하다. 반면 “페스트”는 카뮈의 철학이 소설화돼서 드물게 보는 지성적인 책인 동시에 좋은 소설로 알려졌다. Susan Sontag는 이 책처럼 지성적인 글에 애정을 느끼는 때는 드물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수많은 나태한 생각들을 없애 버리는 내 지능의 청소기”라 부른다. 비교적 배타적인 미국 문단에서도 독서 인기가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철학 외에 플로베르나 해밍웨이를 닮은 문장의 소박함과 투명성 때문이라 한다. 카뮈 자신도 lucid communicable style을 강조했으며 critic 롤랑 바르트도 “이방인”을 평하면서 문학적인 가공이 없는 white writing (l'écriture blanche) 이라 부른다.

소설 “페스트”的 이야기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황들을 알맞게 묘사하고 있다.

도시의 폐쇄적인 상태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배경 도시 오랑(Oran)을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추하고 먼지가 쌓인 나무도 정원도 없는 도시. 태양은 집들을 굽는다. 현대의 도시 오랑은 유명 작가의 이 소설을 좋아할 수가 없다. 소설의 이야기는 주인공 리유(Rieux)가 죽은 쥐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페스트의 감염자들이 속출

하면서 도시는 폐쇄가 된다. 외부와 교통차단이 되고 도시의 문마다 보초 병을 세워 아무도 내보내지도 들어보내지도 못한다. 간단한 전보 외엔 외부와 연락을 할 수도 없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자. 처음에는 비탄의 소리 대신 농담으로 자기들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지나갈 거야. 곧 두려움과 불안의 포로가 된다. 준비가 안된 격리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이별이 갑자기 닥쳐온다. 자기 자신들의 도시로, 덧문이 닫힌 집안으로 추방이 된다. 하루가 무사한 것만으로 만족한다. 고도의 고립 속에서 이웃의 도움도 바랄 수 없게 된다. 시체가 쌓이면서 불편도 쌓인다.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상업이 죽으면서 생필품의 조달이 안 된다. 귀한 필수품을 사려면 긴 줄을 서야 한다. 생활의 단조로움과 외로움은 시민들을 죽인다. 사랑은 추상어가 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다. 시민들은 인생의 대기실에서 미래가 없는 종점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하루가 빨리 가면 그만큼 시련의 종말에 가까워진다고 믿게 된다. 페스트는 그들의 모든 목표를 달성한 뒤 스스로 물러간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경고로 끝난다. 이 환희에 휩싸인 군중들은 페스트의 균이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죄들을 일깨워 우리의 행복한 도시로 다시 보낸다는 것을 모른다.

등장인물들의 묘사는 작가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 등장인물들은 몇 안 되지만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파블루(Paneloux)는 St. Augustine을 연구하는 존경 받는 신부다. 카뮈도 대학시절에 어거스틴의 논제를 썼다. 페스트의 초기 비가 쏟아지는 성당 밖까지 넘치는 청중에게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교한다. 신은 미지근하지 않다. 당신들이 받아 마땅한 이 재앙은 당신들의 갈 길을 보여준다. 인간의 오만과 잘못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무릎을 꿇어라. 재앙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한다. 신의 대행인인 것처럼 청중을 질타한다. 이에 대해 리유는 신부를 대면 분노를 터트린다. 그가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야. 리유는 어린아이 까지 고문하는 신의 섭리를 거부한다.

이 소설 중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Othon의 아들의 죽음을 주인공들이 지켜보는 장면이다.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신음과 비명에 찬 이 장면은 신부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는 중얼거린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당신도 알고 있지요. 인간에 대한 연민을 표시한다. 두 번째 설교를 한다. 우리는 신의 선의를 믿어야 된다. 여기에 중도는 없다. 여러분은 신의 전부를 믿든지 신의 전부를 부정해야 된다. 당신들 중 누가 감히 그를 부정하겠는가. 신은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쓴잔이다. 이 쓴잔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의 배고픔으로 굶어 죽는다. 보건대에 참여한 뒤 페스트에 걸려 죽는다. 그는 리유의 방문을 거부한다. 죽으면서 십자가를 놓지 않는다. 신의 대변인은 신의 가치없는 변덕스러운 도리깨질에 맞아 죽는다.

아랍인들의 생활상을 취재차 파리에서 파견 온 랑베르(Rambert)는 애인과 두절이 된다. 나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나는 여기 오랑에 속하지 않아요. 처음엔 오랑에서의 탈출을 기도한다. 리유도 도와주려 한다. 오랑의 부조리를 탈출하려는 시도는 끝내 실패한다. 자기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려는 리유와 타루의 힘겨운 싸움을 보고 마음을 고치고 보건대에 합류한다. 남이라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에요. 혼자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시민들의 불행을 나눠야지요. 여기를 떠나면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거북해질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랑(Grand)은 묵묵히 봉사하는 늙은 시청 서기다. 보건대에서도 서기로 일하면서 통계를 작성한다. 그에겐 페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된다는 단순한 이유밖에 없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약간의 선량한 마음뿐이다. 전염병의 와중에도 결작을 쓰겠다는 허황한 노력을 한다. 페스트에 걸려서 살아남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가 serum을 맞고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페스트는 물러간다. 그는 평범한 인간을 대표하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obscure hero)이 된다. 리유는 그에게서 보건대를 분발케하는 조용한 용기를 본다.

타루(Tarrou)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아직 젊고 항상 미소 짓는 이 청년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외부인이면서 보건대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는 신이 없으면 윤리적 무질서 상태가 불가피 한가를 보여주는 표본적 등장인물이다.

타루의 행동이 보여주는 신이 없는 성자(un saint sans Dieu)의 표방은 카뮈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카뮈는 타루의 긴 역설을 통해서 사형제도에 도전한다. 타루는 보건대의 대표로 이 소설의 기록자 리유에게 유용한 길고 자세한 기록을 남겨준다. 페스트의 와중에 리유와 함께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달빛이 환한 밤의 바다수영은 (resuscitating swim) 이 소설의 일품 장면이다. 수영을 하면서 그들은 외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recommencer)! 희망과 결단의 외침이다. 그들의 교류는 리유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는 결국 페스트에 걸려 죽음으로 오랑을 떠난다. 타루의 죽음의 장면은 인간 패배의 길고 짙은 적막의 밤이다. 그의 쉽게 떠오르던 미소는 소멸한다. 리유에게는 오직 무력감의 눈물이 남는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인간의 참상을 이용할 줄 아는 무리도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코타르(Cottard)는 페스트를 막을 필요가 없다. 그는 보건대에 참여를 거부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타루의 노트에 의하면 그는 페스트 동안 꽃을 피운다. 밀무역을 통해 번 돈을 흥청망청 쓴다. 나치 동조자로 그렸다는 해석도 있다.

리유(Rieux)는 이 크로니클의 기록자이다. 전 소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의사처럼 보인다. 카스텔은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표본같은 의사이고 serum을 연구한다. 리유는 머리를 깊게 깎은 중년. 노동 계급에서 벗어나려고 의사가 됐다고 토로한다. 그는 안달하는 성격이 아니다. 지성적인 것

## 단 풍

나두섭 (73, 남가주)

### 단풍으로

자연을 물들였네.

나뭇잎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다가올 겨울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을 음미하며

나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있네.

파란 새싹이 돋던 날

무성한 잎을 휘날리던 여름날을

미련없이 보내놓고

남은 시간 아낌없이 불태우리라.

붉은 빛의 석양과

오색영롱한 무지개와

초연한 노년 같은 단풍이

내 마음을 수놓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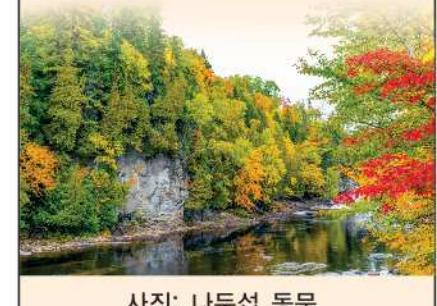


사진: 나두섭 동문

은 쉽게 다룰 수 있다. 무엇이든 온 것처럼 지나간다고 믿는다. 봉사대에 참가한 타루는 리유를 따라다니며 형제애를 느낀다. 둘 사이는 완전히 열려있다. 일에 쫓긴 그들에게는 이 우정을 즐길 시간이 없다.

타루가 묻는다. “신을 안 믿으면서 당신의 헌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리유는 말한다. “이것은 영웅놀이가 아니고 성실성의 문제지요.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다면 아픈 사람들을 모두 신의 보호에 맡길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에 의해서 지배되어도 하늘은 침묵을 지킨다. 그에 반해 리유는 자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수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 매일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시지푸스처럼 페스트가 후퇴할 무렵 요양소에서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받는다. 페스트가 물러가고 도시 오랑은 환희의 물결로 휩싸이지만 리유는 홀로다. 군중에 휩싸인 채 홀로다.

페스트는 물려갔지만 시민들은 이를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추억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지만 인간적 애정과 서로 간의 책임의식은 재앙 때문에 더욱 깊이 인식이 된다. 이 소설은 인간 조건에 대한 저항의 지침서가 된다. 카뮈의 철학적 에세이집

“반항하는 사람(L'homme révolté)”은 이 소설의 의미를 정리해 준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 책은 인간과 인간의 미래에 신뢰를 준다. 긍정적 가치 기준은 주워지는 게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스필타카스는 반항한다. 농노들도 봉기 한다. 이들처럼 부조리한 인간 조건에 반항이 없이 그저 사는 것은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니까. 저항은 정렬을 냉고 동료 인간들과 같이 일할 유대(solidaire)를 굳게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선물은 현재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리유와 타루처럼 인간은 경멸할 것보다는 친양할 것이 더 많다.



## 이중짓대

이 회 백(61, 시애틀)

William F. Buckley Jr.의 자서전 "Miles Gone By"의 마지막 장 'Why Don't We Complain?'에서 그는 미국인을 "milquetoast"라고 보고 미국인들은 이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불평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lquetoast"란 생소한 단어를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 "겁쟁이" "소심쟁이"로 적혀 있다. 미국인들이 "겁쟁이" 또는 "소심쟁이"라는 게 나로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데 그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자기가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그는 그날 막차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이라 밖은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 차안 온도는 85도라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웃옷을 벗고 넥타이까지 풀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차 승무원이 우리 기차간에 나타났다.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웠다. 그런데 "기차표, 기차표 내보이시오," 할 뿐 내 앞에 도달할 때 까지 더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자 나는 이런 승객의 불편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승무원을 승객들이 가만히 둘리가 없다. 어떤 힘센 사나이가 나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 "radiator"에 얼굴을 쳐박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보게 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그저 표를 받아 찍기에만 바쁜 이 승무원에게 덥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자리에 도달하자 나는 숨을 깊이 몰아쉬고는 "Conductor, Sir" 하고 배에 힘을 주고 말했다. 내뱉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커던 모양이다. 내 옆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서 있던 승객이 무슨 그리 중요한 용건이 있길래 그렇게 큰소리를 질러 내잠을 깨느냐는 듯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초리가 내 눈과 마주치자 나는 승무원에게 사유를 말할 용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내 목적지인 Stamford에 도착할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읽던 신문지에 눈을 파묻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승무원이 승객들 사이를 무관심하게 빠져나가는 사이 땀 흘리던 80여 명의 승객 중 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승객이 한 명도 없다니 이게 뭘 말인가. 바깥 온도가 85도고 기차간 냉방 장치가 고장난 거라면 더운 날씨를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깥 온도가 영하인데 더운 기차간 온도를 내릴 방도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 승객들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미국인들이 왜 이런 모양이지. 하루 두 차례씩 기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인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다.

몇 주전 큰 영화관에서 내 아내를 쳐다보고 "화면 초점이 맞지 않는 데" 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쉿…ㅅ, 조용해요."

나는 이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다. 몇 분 후에 참지 못한 나는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몇 분 후면 고쳐질 거요." 내 아내에게는 초점 맞지 않는 것을 둘째고 다음 장면을 놓치지 않는게 첫째인 모양이다. 나는 또 참고 기다렸다. 내 눈은 20/20이다. 분명 화면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지 내 눈 탓이 아니다.

마침내 내 아내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자 우리 둘은 이런 짐작을 했다. 첫째, 조금 있으면 영화관 관리인이 알아차리겠지 하는 것. 둘째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뒤에 앉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앞에 앉은 우리를 대신해 불평을 해줄 것이라는 것. 셋째로 그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 관람자가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예측은 빗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초점이 맞지 않은 채 끝났고 관객들에 밀려 영화관을 나오자 그제서야 초점이 맞는 세상이 우리를 맞이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관람자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다들 나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책임자에게 말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또 누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불평을 하려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시비를 걸기 싫고 점잖게 앉아 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자에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드는 사람은 항상 손해 보니 속이 상해도 꾹 참는 게 상책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 자신도 가끔 불평하는 용기를 부려볼 기회가 있어도 항상 겁을 먹고 가만히 있다. 누군가가 나서겠지 하고 기다린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승무원에게 "Conductor, Sir.", 아니 "Sir"는 너무 비꼬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니 그저 "승무원, 온도 좀 내려줄 수 없소"하지 못한단 말인가.

매년 정월 초하루면 빠짐없이 이해에는 "겁쟁이", "소심쟁이" 딱지를 떼버리겠다는 맹세를 잊지 않고 한다. 작년 새해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달라고 세 차례나 요구한 끝에야 가져오자 마실 생각이 없어진 나는 마지 않고 나왔다. 마지 않고서도 아무 말 없이 지불하고 나왔다. "겁쟁이"인 나에게 화가 치밀었다.

올해엔 반드시 내 수줍음을 짊어치우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와 싸우자. 내 권리를 주장하되 침착함을 잊지 말고 이 사회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불평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자.

그런지

48시간 후

나는 버몬트 스키장 스キー 빌리스 카운터



에 줄을 서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사를 조일 스크루 드라이버를 빌리는 것 뿐이어서 빨리 진행될 거라 믿었다. 두 점원이 고객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 직원은 젊은 여자에게 장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그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고 담배연기를 연실 뿐 어대는 뚱뚱한 중년 남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 큰 몸뚱이를 의자에 파묻고 동료 직원과 잡담에만 열심일 뿐 손님을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자 내 맥박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너무나 시간을 끌자 나는 한가한 이점원에게 눈총을 보내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 잡담에만 열심일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갑자기 48시간 전의 내 신년 결의안이 발동했다. 이럴 때 내 신년 결의안을 써먹지 않으면 언제 써먹는단 말인가. 결심이 굳어지자 내 앞에 서있는 여섯 명을 제치고 줄을 나와 앞으로 전진해 점원 앞으로 다가섰다. 침착하자는 내 신년 결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주먹을 불끈 쥐고 감정을 눌러 보려는 나의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당신들이 과히 바쁘지 않다면,"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스크루 드라이버를 건네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호기심, 적의심, 당혹감의 중심에 서있는 나임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입에 문 담뱃대를 빼물며 "Sorry Sir,"에 이어서

"나는 움직이면 안 되게 되어있소. 나는 방금 Heart Attack…"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커다란 군용 헬리콥터가 내려와 그를 태우고 올라가 사라졌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순서를 거꾸로 내 일기장에 적고 있었다. 더 쓰기 위해서는 식사 트레이를 치워야 되겠기에 승무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여자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내 트레이 좀 치워주시겠소," 하자 "Wait a minute Sir." 하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한 자세로 행진해 갔다.

"어차피 다른 승객들 트레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방에 가야 하고 내 트레이를 가져가는 데는 많이 잡아야 2초만 더 소비하면 될 텐데…" 하고 말해야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또는 불과 15분 전에

"즐거운 여행이 되시도록 무엇이든지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하고 그가 방송했음을 상기시켜줄까 하고 쓰고 나니 용기가 동이 났다.

내 생각으로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런 사소한 일은 불평하지 않고 지나치고 마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기술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집중화로 인해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미국인들은 춥거나 더울 때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 살았다. 지금은 plumber, electrician 또는 furnace man을 불러야 되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를 내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만다.

점점 심해지는 우리들의 무관심도 이와 연관된 현상이다. 권력이 민주당에 속하든 공화당에 속하든 권력은 점점 개인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결정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기회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개인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갈수록 심해지고 따라서 국민은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어느 전국적인 주간잡지 편집자가 말하기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 열명 정도의 독자가 비판글을 올려도 전편집진이 모여 편집 정책을 재검토하곤 했는데 요즘은 구독자 수는 증가함에도 독자로부터의 비판 편지는 점점 줄어들어 그런 회의를 여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들의 불평이 끊어질 때 우리는 인형으로 전락하고 무관심의 높에 빠지게 된다. 소련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갖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정작 와보니 비판보다 압도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호적인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나만의 미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이 사회엔 더 많은 불만에 찬 포스터가 거리에 나부껴야 한다고 믿는다. 한겨울에 기차간 온도가 85도인데 아무 불평이 없는 사

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서도 불평하지 않는 게 미국인의 문제라는 Buckley가 정반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자.

때는 1965년 2월 18일, 장소는 영국 Cambridge Union이다. 1965년은 미국 인권 운동이 거셌던 해로서 흑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Voting Rights Act 통과를 위해 싸우던 해이다.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백인들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고 많은 흑인이 투옥되었다. Martin Luther King Jr.도 그중의 하나다.

이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흑인 작가이자 민권운동가인 James Baldwin을 Cambridge Union이 연사로 초대했다. 계기는 그의 새 소설 "The Fire Next Time"이 큰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Baldwin은 자기와 견줄만한 토론 상대자라면 초대에 응하겠다고 통보했다.



Baldwin and Buckley

물색 끝에 Baldwin 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보수논객으로 등장한 Yale 출신 William F. Buckley가 선출되었다.

토론 의제(motion)는 "the American dream is at the expense of the American Negro"였는데 Cambridge Union 역사상 최대의 관심을 끌어 700명이 넘는 학생이 강당을 메우고도 넘쳐 강당 외에 closed circuit TV까지 설치하고 BBC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했다. 학생을 대표하여 찬성에 Heycock, 반대에 Burford가 나와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 있는 내용이나 생략하고 Baldwin과 Buckley의 인물 소개와 중요 논점만 적어보겠다.

Baldwin과 Buckley는 15개월 사이를 두고 출생한 동시대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 배경과 성장과정은 전혀 다르다.

Baldwin은 Harlem 빈민가에서 출생해 평생 Negro(그때는 지금과 달리 Negro라고 불러도 되는 시대였다)이기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차별과 빈곤 속에서 자랐다. 반면에 Buckley는 Connecticut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개인 음악선생을 둘만큼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영국에 건너가 prep school 교육까지 받은 후 Yale을 나왔다. Yale 대학 재학 중

"God and Man at Yale"이란 책을 출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Baldwin은 작가로 두각을 나타내 Harlem의 삶과 인간을 다룬 소설과 수필을 썼다. 그의 작가로서의 명성은 자연히 그를 중요한 인권운동가로 등장시켰다.

그는 Cambridge Union 연설에서 "I picked the cotton, I carried to market, and I built the railroads, under the someone else's whip, for nothing. For nothing"이라고 "I"를 강조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I"는 "We-Negro"를 말한 것이고 for nothing이란 아메리칸드림은 값싼 우리 노동력에 의해 성취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나는 선교사들의 구호 대상자가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의 하나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9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인을 계속 아메리칸드림에서 제외하는 한 서방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다음면에 계속)*

**Amor Fati**

한 지인에게서 짧은 사연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마지막 문구가 “매일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다. 이런 덕담은 듣기에 좀 그렇다.

사시사철 좋은 일만 일어나라는 덕담은 빈말처럼 들린다. 매일 아침 마스크를 쓰고 병원문을 들어서면 직원이 대뜸 이마에 레이저 체온기를 들이대는 2020년 6월과 결이 맞지 않는다.

“What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명언이 떠오른다. 니체의 강인한 초인(超人) 철학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초인은 고난을 견디기보다 발벗고 나서서 사랑한다. 그는 신의 가호를 바라기보다 신의 죽음을 선언한다. 당신과 나에게 강한 동기의식과 패기를 부여한다. 그는 하릴없이 좋은 일만 호락호락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힘의 고양이다.

니체의 ‘즐거운 지식(Gay Science, 1882)’에 나오는 ‘Amor Fati, 숙명 사랑’ 부분을 다시 읽고 유튜브를 찾아본다. 음미를 하면 할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나는 힘이 솟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전략) Amor Fati, 이제부터 삶이 내 사람이기를! 나는 추악한 것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비난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비난하고 싶지 않다. 고개를 돌리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거부반응일 뿐. 그리하여 대체로, 전반적으로, 어느 날 내가 오로지 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본인譯)

유튜브에서 김연자가 부르는 ‘아모르파티’를 보았다. 시작이 이렇다. ---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깃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니체의 발언과 김연자의 가사를 비교한다. 니체는 사랑, 전쟁, 비난, 거부를 거친 다음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이쯤 되면 소망이 아닌 염원으로 보아야 하겠지. 반면에 김연자는 빈손, 소설, 실망을 거친 다음 내일을 바라보며 인생은 지금이라고 소리친다. 니체가 미래를 다짐하는 동안 그녀는 오늘에 집중하면서 흥겹게 몸을 훈든다.

1914년 12월 9일, 에디슨이 67살 되던 해,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 소재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 공장에 큰 불이 났다. 패닉에 빠진 아들에게 그는 “엄마한테 가서 친구들을 불러오라 해라. 이런 큰 불은 다시 구경하지 못 할 거라고 전해라!”했다. 다음날 그는 그곳에 더 근사한 공장을 지을 것을 다짐했다. 에디슨의 아모르파티!

‘fati’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 ‘fate’를 운명이라 하지 않고 숙명이라 번역한 점에 당신은 유의하기 바

**니체처럼, 무당처럼!**

서 량(69, 대뉴욕)

란다. 같은 ‘목숨 명’에 운명은 ‘옮길 운’이고 숙명은 ‘잘 숙’이다. 숙명이란 태어난 팔자처럼 요지부동의 기본여건이다.

‘fate’는 전인도 유럽어로 ‘말하다’라는 뜻이었다. 목숨 명(命)에도 ‘말’ 또는 명령(命令)이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어원학적으로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같았다는 점이 놀랍다.

명령 하나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었다. 지금 세상도 그렇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포한다. 44살의 젊은 나이에 광기(狂氣)를 보인 후 55살에 명을 달리했지만 평생을 짙은 삶의 사랑으로 혼신을 불사른 인류 최초의 초인이었다.

**Medicine Man**

피터가 말도 안되는 말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가 건강을

회복한 27살의 옆방 환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후,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자기가 목졸라 죽였다고 간호사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본다. 그는 변호사 충고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경찰이 언제 병동에 와서 저를 체포할 것이냐고 묻는다. 참, 너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감옥으로 후송 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 이 병동에 있기가 싫어서? 하며 나는 대꾸한다. 그는 나를 노려보기만 하고 대답이 없다.

환자가 ‘confabulation’을 했다는 보고서를 썼다. 단정적 진술이다. 이 말은 담소, 잡담, 수다를 좀 격식 있게 뜻하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작화(作話)라 지칭한다. 지을 作, 말씀 話, 소설이나 시처럼 만들어진 말. ‘fable(우화, 꾸며낸 이야기)’ ‘confabulation’과 말뿌리가 같다. ‘거짓말’이라 해도 좋은 경우를 ‘작화’라 하는 이상한 어법에 일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는 법!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멀리한다.

공상허언증(空想虛言症, pseudologia fantastica)도 작화증(作話症)과 뜻을 공유한다. 이 두 증세는 어디까지나 무의식의 소산이라고 친절한 해석을 내리는 정신과 의사들도 있지만 대개 ‘pathological lying, 병적허언(病的虛言)’이라 어렵게 말한다. 마치 무슨 엄숙한 고사성어처럼 들린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 끊기고 싶지만.

정신과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 환자가 자기는 병이라고 설득력 있게 우기기도 한다. 사회풍조가 전통적 진단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병이 아닌 상태를 병으로 규정하는 일이 예사다. 오래 전 정신질환이라 불리던

동성애가 이제는 정상이 된 것이 그 좋은 예다. 반면에 올데갈데없는 범죄자들이 정신과 환자라는 허울을 쓰고 내 병동 환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당신과 나같은 소시민들도 정신과 환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수가 있다. 오래 지속되는 어두운 마음을 악으로 다스리고 싶다. 좌절감이 심할 때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서 유연해지고 싶은 심정과 비슷하다. 불행한 환경과 상황이 어찌 정신질환이라는 말인가.

요사이는 불편한 감정상태에 진단명이 붙는다.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어둡거나 울화가 치밀 때 우울증이 있다고 자가 진단을 붙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medicalization, 의료화(醫療化)’라 일컫는다. 당신 마음을 의사가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정부가?

환자 아버지가 나를 “chemistry man”이라 부르길래 내가 “mental man”이라고 빼꼼하게 응수한 적이 있다. 그때 ‘medicine man’이라고 농담을 할 걸 그랬다. 전인도 유럽어에서 ‘medicine’은 ‘적절한 방침을 취하다’라는 뜻이었다. 암,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하는 농담도 적절한 방침이 될 수 있지. ‘Medical Doctor’나 ‘medicine man’이 뭐가 그리 다르냐. 참고로, ‘medicine’은 14세기에 ‘약’이라는 뜻이 주류를 이루었다. 요즈음도 그렇다.

‘medicine man’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민속신앙에 뿌리박은 초능력을 가진 주술사, 또는 다른 전통문화의 ‘무당’을 뜻한다. 2020년에 코로나 환자를 상대하다가 거짓말을 일삼는 피터 같은 환자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는 초능력이 생긴 것 같다. 나는 이제 무당이다.

**20**  
1980년대 말경 아메리카 온라인(AOL)에서 나는 인터넷 시(詩) 동호회의 열성 멤버였다. 켄터키 주 어느 멋진 여류시인과 문자를 주고받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남편이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유가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차마 무신론자라는 말을 못하고 그러마 했다. 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몇 달 후 그녀 남편은 사망했고 그녀는 내게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수년 후 다시 인터넷에서 그녀와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가 전 같지 않았다. 그녀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솔직히 나는 평생 기도를 해 본 적이 없다. 가끔 남이 하는 기도에 실눈을 뜯 채 잠시 판 생각을 하는 비기독교인이다.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의 연설은 가끔 조롱 섞인 웃음도 자아내고 예리한 질문도 나왔다. 연설이 끝나자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 544표 반대 164표로 가결되었다.

한마디로 Buckley는 400년 동안 겁쟁이, 소심쟁이로 살아온 Negro들에게 계속 불평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다. 그의 자서전에서 “Why Don’t We Complain?” 하고 말한 그가 Cambridge Union에서는 “Why Do You Complain?” 이란 격으로 말했던 것은 그의 “We”에 Negro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uckley만 그런가? 아니다 우리 다 그렇다. “We”에 모든 사람을 포함

정신과 월간지에 실린 “종교와 영성(靈性, spirituality)과 건강의 긍정적인 면과 불리한 면”이라는 글을 읽었다. (Psychiatric Times, 2020년 7월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종교인들의 종교의식과 기도(祈禱, prayer)의 효능에 대한 담론이다.

글은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를 인용하면서, 2012년에 발표된 정신과 논문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은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10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보고를 소개한다.

2016년 암과 심장병에 대한 연구에서는 7만 4천여명의 여성들을 16년 동안 추적했다. 그들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전혀 참가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암과 심장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33퍼센트나 낮다는 소식이다.

CNN 기자는 4월 20일 마스크 쓰기를 반대하며 정부에 항거하는 펜실베이니아 시위대에 참가한 트럭에 쓰여진 커다란 표어, “Jesus is my vaccine, 예수는 나의 백신”에 대하여 언급한다.

가족과 친지 중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쾌차하기를 기도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다면? 더 자주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할 걸 그랬다. 하는 회한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절실히 애원이 거절당했다는 실의에 빠지거나 분노하는 감성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하버드 대학 팀이 발표한 2006년 보고서를 읽는다. 10년에 걸쳐 1,800명의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도의 힘’에 대한 연구 결과! 기도를 열심히 해준 환자들의 합병증이 기도를 해주지 않은 환자들보다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이다.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환자의 마음이 심장에 부담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기도(祈禱)는 한자어 사전에 ‘빌 기’에 ‘빌 도’라 나온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하는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빌’은 순 우리말이다.

‘pray, 기도하다’는 13세기 고대 불어와 라틴어에서 ‘구걸하다(beg)’와 ‘신에게 간청하다(entreat)’라는 뜻이 공존했다. 전자는 거지를, 그리고 후자는 빙을 연상시킨다. ‘빌어먹다’도 구걸해서 먹는다는 뜻이지!

종교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기도가 주관과 객관이 양분법으로 구분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파한다. 나와 남, 나와 신, 같은 이분법 공식으로는 전혀 기도발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도의 힘을 빌려서 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기도는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행하고 다스리며 돋는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절차가 아닐까 한다.

(이 세 편의 수필은 근래에 뉴욕중앙일보 컬럼, ‘잠망경’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시킨 것을 보여준 사람은 예수뿐이고 신만이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We”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킬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중자대 자다. 우리는 다만 “We”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MILES GONE BY; a literary autobiography by William F. Buckley Jr.  
THE FIRE IS UPON US;  
James Baldwin, William F. Buckley Jr., and the Debate over Race in America  
by Nicholaas Buccola



## 재래식 서비스

김명원 (68, 남가주)

외국에서 들어온 상점이나 고급 백화점 점원들의 서비스와는 달리 재래식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정신은 옛날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다.

호객할 때는 간이라도 빼 줄 것 같아 이 애를 떨다가도 당장 물건을 살 손님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언제 봤냐는 듯 금방 태도가 바뀐다.

아침에 낙원동의 악기점을 구경 가보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저녁때 가라고 한다.

상인들은 마수걸이 손님이 들어왔다가 사지 않고 그냥 나가면 종일 재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꼭 살 마음이 없으면 아침부터 그들의 기분을 잡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지 아무렴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으랴 싶기도 했고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되려니 하는 생각으로 상가엘 올라갔다.

상가 안에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건이 복도에까지 넘쳐 나오게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복도에 들어 서자마자 가게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점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어느 사이에 다가와서 사분사분하게 무얼 찾느냐 묻는 바람에 를래식 기타를 보려고 한다고 대꾸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몇 호 정도를 찾으십니까?”

“‘호’가 뭉니까?”

“50호 정도면 쓸만할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점원이 하나를 들어 보여 주는데 소리도 그렇고 별로 공들여 만든 것 같지도 않았다.

“이건 얼마나 됩니까?”

“50만 원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호’는 가격을 말하는 거군요.”

“....”

50만 원이면 대충 넉넉하게 잡아 500불 정도다.

얼른 속으로 계산을 해 보니 가격으로만 고려하더라도 400호 이상은 되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일 것 같았다.

좋은 기타를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에게 물었더니 요즈음은 한국에 좋은 기타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다고 하길래 이번 고국 방문 길에 좋은 기타도 하나 구하고 그런 장인과 만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혹시 500호 정도 짜리는 없습니까?”

“그런 건 특별 주문하셔야지요.”

“그런 수준의 기타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습니까?”

혹시 유명한 장인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았다.

점원은 이미 내가 당장 살 마음이 없는 것을 간파했는지 대답도 않고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앉더니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특별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우선 좀 알아보려구요.”

그것이 그 짧은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요즘은 스페인의 장인들 보다 한국 장인들을 더 쳐 준다 더라는 등 약간의 아부성 발언으로 말을 걸어보아도, 방금 보여준 50호짜리를 만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나 등등 물어보아도 판 청만 부리고 묵묵부답이었다.

그림 그리는 캔버스는 크기에 따라 20호니 30호니 ‘호’수를 메기지만 기타 같은 악기에도 ‘호’수를 메기는 것도 신기해서 더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친구에게 얘기해보아도 당할 것 같아서 슬그머니 뒷걸음질쳐 나왔다.

“수고하세요”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도 잘 가라는 소리도 없다.

청계천의 책방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교보문고에 가 보아도 없고 내가 찾는 악보는 가벼운 기타 독주곡인데 옛날 학창 시절에 잠깐 유행하고는 그 후로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청계천 한 책방엔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 산책 겸 거길 찾았었다.

가 보니 옛날에 이집 저집 쑤시고 다니며 뒤져서 고우영이 짧었을 때 추동성이란 이름으로 그린 만화 ‘짱구박사’도 발굴해 내고 세로 쓰기로 된 ‘삼국지’도 헐값에 구했던 현 책방들은 다 없어지고 성서와 아동 서적 전문상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한 아동 서적 책방에 고개를 디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도와드리리까?”하고 밀착할 듯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나이가 지긋한 노인네가 내 등 뒤에서 나타났다. 아마도 주인 양반인 모양이었다.

“이 동네가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엔 여기가 다 고서적방들이었었는데...” 했더니 아무 대꾸도 않고 다소곳이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근처에 악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었더니 무슨 악보를 찾으시느냐고 제법 관심을 보인다.

속으로 왕년에 악보점도 했었나 보다 하고 악보 이름을 대니 그런 건 없단다.

없을 거야 뻔한 일이 아닌가. 악보 상이 아닌데.

동요집이라도 찾는 걸로 알았나?

혹시 근처에 악보 전문서점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타이르듯이 “다녀 보세요.” 하고는 스르르 안으로 사라졌다.

기똥찬 대꾸였다.

‘어딜 가보라’든가 아니면 ‘모르겠다’는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다녀 보세요’라니.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해?’는 건너뛰고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꺼져’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한 푼이라도 이가 남지 않을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깍쟁이 장사꾼의 몸에 배인 서비스 스타일이었던 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돌아 나온 기억도 없는데 내가 어느새 행인들로 봄비는 도로에 나와 좀비처럼 서 있더라라는 것이었다.

영감의 노회한 솔수에 흘려서 얼떨결에 밀려 나왔음이 틀림없었다.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돌아다니다가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문득 호떡이 먹고 싶어졌다.

노점상들이 많은 걸 보니 호떡 장사가 분명히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한참을 다녀 보아도 눈에 띄이질 않는다.

마침 ‘김떡순’(김밥, 떡볶이, 순대) 포장마차가 있어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치켜뜬 눈으로 우리를 잠깐 쳐다보고는 그런 장사는 근처에 없단다.

현데 두어 블루를 못 가서 길모퉁이에 웬 호떡 장사가 문전 성시, 목하 성업 중이 아닌가.

초장부터 음식이 아닌 다른 업종의 노점상에게 물어보았어야 하는 건데 머거리 경쟁 업종자에게 물었으니 해당초 우리의 생각이 짧았던 것이다.

내 것은 안 팔아주고 누굴 약 올리는 거냐 하는 마음으로 샐쭉 토라져

서 없다고 심통을 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받아든 뜨끈한 호떡을 한 입 씩 베어 먹으며 여기서 장사하신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물으니까 일 년이 넘었단다. 친구가 또 물었다.

“조오 아래 김떡순 아주머니 아세요?”

“잘 알구말구요. 우리 집에 호떡 먹으려 가끔 오지요.”

허 참, 이런 밴댕이 소갈머리가 있나. 몰랐다면 몰라도 호떡을 먹으려 자주 오기까지 했으면서 그런 가게는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꽤씸해서 호떡 아주머니한테 일러바치려고 하는 참인 데 친구가 내 소매를 잡아 끈다.

“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구 김떡순네 가서 호떡 줄 테니까 순대하구 바꿔 먹자구 그러자.”

## 아비뇽의 秋日

晚圃 김병오(69, 베지니아)

중세의 골목길 따라 저녁종소리 퍼지고

초가을 낙엽 한잎 대리석 石像 위에 내려 앉는다

때 늦은 回心인양 빠걱이는 문을 열고

순례길 14세기 옛 교황청 가는 길

궁정마차들의 말발굽소리 멀리 들려오고

칠백년의 이야기를 듣다 칠십년을 돌아본다

나도 슬픈 王朝의 한 편이 되었다

오래된 눈물은 일렁이는 성벽으로 말하고

음유시인은 오늘도 미스트랄\* 부는 거리에서 運命의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움도 저무는 것일까

아비뇽 끊어진 다리 위로 조각달 뜨고

당신의 花樣年華 방금 멈춘 회전목마 옆을 지나고 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젊은 날의 허기

라벤다 꽃향기, 장미빛 매혹, 고딕 성당의 그림자로 스며들고

환청이었을까 미래 매티우\*의 ‘아비뇽의 王子’가 들려온다

불멸의 꿈이었지, 사랑했노라, 춤추었노라

금빛 평화가 내려 앉은 수도원 뒤풀에 불안이 숨는다

언젠가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 피를 몰고 간 저녁

晩鐘 소리 이 골목을 낮게 지나갔으리

끝나지 않은 목마름과 떠나야할 내일이 창백한 廣場에 그림자로 서 있다

천년 흘러 다시 오면

혼\*江의 물결 저녁빛에 구비치고

저 바람 불어올까 저 높히 금빛 첨탑은 빛나고 있을까.

\* 남프랑스에서 지중해 쪽으로 부는 차고

건조한 바람. 알퐁스 도데의 소설을

본 사람들은 꽤 낯익은 이름이다

\* 상송가수 Mireille Mathieu

‘Un prince en Avignon’

\* Rhone river



## 2020년 10월 시계탐 편집회 초록

코로나 사태로 지난호를 편집할 때와 동일하게 원고 리스트를 전 편집위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냈다. 서귀숙 위원의 교정을 대부분 거치고 황사장과 서윤석의 전화통화로 이날 예정대로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진행되었다.

28항의 들어온 원고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 설명하였다. 특별히 중요한 1면 기사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예년같으면 10월호 첫면에 학술대회나 40주년 기념사진과 기사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판데믹으로 결여되어 37차-2021년 혹은 2022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가 쓴 기사를 실기로 했다. 아울러 근래에 젊은 졸업생이 11명이나 미국 병원에 매칭되어 지난 4월호에 7명을 소개했으며 추가된 4명을 이번호 첫면에 실어서 우리 동창회의 희망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원고가 정리되는 대로 10월 18일까지 가편집을 하여 다시 전 편집위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묻는다. 10월 21일까지 답을 받고 10월 24일에 모든 의견을 검토하여 정리하여 인쇄와 발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편집장이 조금 부족한 원고를 작가들에게 요구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2시경에 편집회를 마쳤다. 다음 편집회는 2021년 1월 9일 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시계탐에 글쓴 사람중에 徐慈性(68)은 慈性 서윤석임을 말씀드린다. - 글: 편집장 서윤석



## 시간이 걸려야 좋은 것들

이 건 일 (68, 남가주)

배가 항구를 천천히 떠나면서 승객과 전송객들이 긴 시간 동안 손을 흔들며 streamer가 휘날리는 그런 광경은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전 세기이나 있었던 일이다.

요즘은 그 살벌한 널따란 공항에서 이별하는 맛도 없다. 너무 짧고 운치도 없는 인스턴트식 이별이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덕에 공항에도 못 나가고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선 타기도 조심스럽다.

무엇이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더 의미있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다. 하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slow cooking이 다시 유행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맛이 든 간장, 된장, 고추장에 맛이 든 구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모양이다.

이름끼나 있는 뉴욕, 런던, 파리의 세프들이 죄다 고추장을 기본 소스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제 바야흐로 한국 음식이 세계를 제패할 때가 온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맛이 드는 우리 발효 음식에 구미인들이 눈을 뜯 모양 인지.

저녁마다 우리 마나님과 내가 같이 열심히 보는 KBS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에 가끔 나오는 광천 토굴 새우젓이 매우 먹고 싶다. 아니 젓갈 백반을 먹어 보고 싶다.

나는 젓갈을 무척 좋아한다. 어리굴젓, 밴댕이젓, 참란젓, 명란젓, 새우젓 특히 육젓 등등. 그래서 내가 시간이 걸려 발효되는 와인, 치즈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동네 한인 마켓에서 파는 새우젓은 전부 중국제이다. 한동안 사지 못하다가 최근에 할 수 없이 사와 먹고는 있으나 영 찜찜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반찬의 기본 간은 전부 새우젓으로 하였다. 호박지짐이, 달걀찜, 김치 등.

할머니는 황해도, 어머니는 경기도가 고향이라 대부분 심심하고 고춧가루가 약간만 들어가 있는 반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맛본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젓갈을 들판 넣은 시뻘건 김치는 나에게 가히 문화적 충격이었다.

30여 년 전에 살던 집 뒤뜰에 조그만 Austrian Pine 세 그루를 심은 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카드에 잘 나오는 그런 소나무였다. 이것들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이라 심은 지 3, 4년이 되었는데도 도무지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았다. 매일 쳐다보아도 여전히 낮은 키에 조그맣게 보였다. 결국 그 큰 모습을 못 보고 이사를 해버렸었다. 남의 집에 있는 크게 자란 같은 나무를 볼 때마다 집 사람이 꼭 말하곤 하였다. ‘지금쯤 우리 옛날 집에 심은 그 소나무들은 많이 커겠지?’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일부러 먼저 살던 동네를 돌면서 멀리서 집들 사이로 그 나무들을 보았더니 참 보기 좋게 커 있었다. 그것이 30여 년 전 일이니 지금쯤은 거목이 되어 있을 거다. 여기 남가주에서 흔히 보는 키만 커다랗고 솔잎도 맥이 없고 성글고 자주 말라죽거나 바람에 뿌리가 뽑히는 캘리포니아 소나무와는 비교 불가이다. 속성으로 자라는 소나무나 배나무(관상용)들은 잎과 가지가 성글고 키만 잔뜩 커지지 별 볼품이 없는데,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인 Ausrian

Pines, Himalayan Cedars, Oak Tree, Maple Tree, White Pines들은 시간이 걸려서 자라니 나중에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꽃들도 일 년 초들은 얼른 보기에 화려하고 예뻐 보이나 다년생 화초의 그윽한 기품은 볼수록 마음에 듈다.

Slow cooking은 우리가 자라던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시던 요리 방법이다.

밥은 가마솥에 장작불 때어 지은 것이라 지금 전기밥통에 얼른 지은 그 밥맛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잔칫날 며칠 전부터 재료 준비하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여 만든 음식들을 이제 어디 가서 맛볼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는 무슨 큰일 치를 일이 있으면 할머니께서 하시던 제일 첫 번째 일이 장을 보러 가서 민어를 구해 오시는 것이었다.

할머니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선은 민어이었고 이걸로 부친 생선전은 내게는 아직도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생선 요리 보다 더 맛있었다. 할머니가 부치시는 옆에 앉아서 막 지져 낸 전 한 조각을 얻어먹던 그 맛은 무엇에 비할 수가 없었다. 요즈음은 민어가 귀해서 금값인 모양인데 민어전 한 접이 먹고 싶다.

또 하루 이를 전부터 큰 무쇠솥에 설설 끓인 쇠고기 곰국의 그 맛을 나는 잊지 못한다. 음식점에 가서 사 먹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집에서 먹던 것보다 맛이 없는 것 같다. 이곳에도 설렁탕집은 있어 가끔 가서 기억에 녹아 있는 맛의 갈증을 풀곤 한다. 그러나 옛날의 그 맛은 아니다.

요즈음 이곳에서도 Slow Cooking이 다시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신문, 잡지에 요리 방법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요리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서양 요리 중에서도 천천히 만드는 것들, Stew, Bouillabaisse, Roast Beef, Roast Pork 등을 좋아한다.

Stew란 원래 집 한구석에 난방 겸 취사용으로 쓰이던 Hearth(Fire Place)에 걸린 무쇠솥(Cauldron)에 물을 끓이면서 거기에 보리, 밀 등 곡식이나 각종 야채(옛날이니 계절에 따라 달랐겠지만)들을 넣고 가끔 먹다 남은 고기 조각, 기름, 뼈다구 등을 넣고 하루 종일 끓인 것에서 출발한 것 일터이다. 그전에는 무엇이든 장시간 끓이거나 소금에 절여 저장하였다 먹거나 해야만 되었었다. 오븐(Oven)을 이용하여 빵 굽는 기술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온도,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몇 백 년 되지 않는다.

프랑스 마르세유 지역에서 발달한 부이야베스(Bouillabaisse)는 우리 생선 매운탕처럼 각종 잡고기로 국물을 낸

후 거기에 좀 더 비싼 새우, 바닷가재, 조개 등을 넣고 올리브 유, 각종 향신료, 각종 Herbes를 더하고 그 위에 사프론(Saffron: Saffron crocus의 꽃술을 말려서 쓴다.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신료 중의 하나)을 넣어 그 향과 색깔을 이용하여 만드는 요리이다. 우리 식 생선 매운탕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 여행 중에서는 이미저도 감지덕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식을 맛본 어떤 영국인이 쓴 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국은 한국의 생선 매운탕이라고 한다. 매운맛과 생선, 해산물의 풍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이야베스를 먹어 보려고 우연히 들린 그릇 가게에서 반액 세일하는 Staub 철제 주물 큰 냄비를 하나 샀다. 이 회사는 철제 주물 그릇만 150여 년 이상 만들고 있는 프랑스 회사이다. 철제 주물 그릇은 열전도가 고루되고 보온이 잘 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나 음식의 맛이 훨씬 훌륭하다고 한다.

그 외 La Creuset라는 회사 제품이 유명하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현명하게도 이것을 몇백년 전부터 알고 무쇠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후 그릇에 우리 집 식 변형 부이야베스를 두어 번 해 먹어 보았다. 맛은 좋았는데, 조리 시간이 워낙 길고 그릇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힘들다고 우리 마나님 이 불평하는 바람에 그 냄비는 지금 그냥 찬장 속에서 잠자고 있다.

몇 해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외인 그린징(Grinzing) Staub Bouillabaisse Pot에 즐비한 우리의 술도가 겸 주막집 격인 Heurigen 중의 한 집에서 그 집에서 막 빚은 흰 포도주(Gruener veltliner)에 돼지고기(Pork Roast)를 먹은 일이 있었다. 술은 향기로웠고 돼지고기 요리는 곁에 소금과 각종 향신료를 잔뜩 발라 아주 오랜 시간 오븐에 구워 내었는지 포크나 맨 손가락으로 발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입에 군침이 돈다.

비엔나 하면 Wiener Schnitzel(일본인들이 수입해서 약간 변형시킨 돈가츠의 원형)이 유명하다고 하나 워낙 기름에 깊게 튀겨낸 음식이라 두 번째 먹으려면 기름 냄새가 역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비엔나의 유명한 요리는, 황제(Kaiser)가 너무나 사랑하여 거의 매일 먹는 바람에 비엔나에

크게 유행하였다 타헬스피츠(Tafel spitz)에서 어린 숏 송아지의 뒷다리 부분 16개소 중의 한 부위인 Tafel spitz=table point (고기를 잘라 놓은 모양이 책상 모서리같이 뾰족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를 각종 향신료와 함께 장시간 삶아서 그 고기와 국물을 먹는 요리이다. 워낙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보통 음식점에서는 먹어 보기 힘들다고 해서 호텔 concierge에게 부탁하여 예약을 해서 비엔나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고 또 잘 한다고 소문난 집에 가서 먹어 보았다.

먼저 큰 냄비에 고기와 국물이 나오고 삶은 고기를 먼저 주어 Horse Radish에 찍어 먹고 나중에 국물에 삶은 파스타(Pasta)를 넣어 먹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수육을 먼저 먹고 그 국물에 국수 넣어 먹는 것과 맛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입맛은 양의 동서가 없나 보았다.

남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몇 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고 투우의 시발지라고 하는 산간 마을 Ronda의 Paradores restaurant menu에 oxtail 요리라고 올라 있기에 얼른 주문하였다.

맛이 딱 우리나라 소갈비찜과 똑같았다. 그 후 두어 번 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시켜서 먹어보곤 하였다. 나중에 어째서 이곳에 소꼬리 요리가 있게 되었나를 알게 되었다.

투우에서 죽은 소의 고기를 사람들이 나



Tafelspitz

누어 먹는데 힘센 숏소 고기이니 질겨서 맛이 없고 그저 꼬리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 내가 먹었던 요리였던 것이다. 또한 천천히 하는 요리의 대표 격이 되겠다.

맛있고 훌륭한 요리나 좋은 포도주가 천천히 시간 들여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나아가며 자꾸 먹어 가는 요즈음 더 자주 느끼며 살고 있다.

## 나이 먹어 가면서

어느 시인 하나가 어느 글에선 가쓰기를,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80대는 날마다, 90대는 시간마다, 100대는 분마다 늙는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5세라는데 나는 아직도 평균보다 7-8년 덜 살았고 70대이니 달마다 늙어 가는 처지인가 보다.

나이 먹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나이와 기억력은 반비례하니 이것이 문제다. 무엇을 찾으러 이층에 올라와 놓고 보니 왜 올라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도로 일층으로 내려가본다. 아, 참 그래서 올라갔었구나 하고 생각해 낸다.

식료품 사러 가려고 종이에 잔뜩 메모 해놓고는 정작 그 메모는 잊어 먹고 가져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로서리 쇼핑은 언제나 생각보다 더 많이 사거나 꼭 필요한 물품 한두 가지는 빼어 놓고 와서 반드시 다시 가게 만든다. 이런 것은 약과다.

한 번은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이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뒤집어 놓고 다니다 원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너무도 한심해서 기운이 빠진 적도 있다. 이런 일들의 빈도와 심각성이 나이와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며칠 전에는 골프를 치다 잘못 친 티샷의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아 두었다고 생각했다. 이어 두 번째 샷을 치고 공을 찾으려 나섰는데 문제

는 그동안 공이 어디로 떨어진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 황당함과 무력감과 자괴감이란….

골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방콕하는 중 유일한 외출인 골프를 못 치면 무슨 맛으로 살 것인가. 그대로 계속했다. 그러니 좋은 스코어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지.

우스갯소리에 건망증 경증 증상은 소변 보고 바지 지퍼 안 올리고 나오는 것이고, 중증 증상은 바지 지퍼 안 내리고 쉬 하는 것이고, 제일 심각한 증상은 바지 지퍼 안 내리고 일보고 나오다가 거울 보고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웬 늙은이가 쳐다 보고 있으니 “거기 뉘슈?”라고 하는 것이라.

지난 몇 년간 나에게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다.

### 첫 번째 이야기

보스턴에 사는 아들 집에 다니러 갔었다. 아들 내외가 다 일을 하니 아직 학교 가기에는 어린 둘째 손자 놈을 데리고 놀았다. 아이들 꾀이는 데는 단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 어제 아들 내외 몰래 사온 사탕 봉지를 뜯고 손자 녀석과 둘이 맛있게 먹었다. 몇 시간 지나 화장실에 들려 볼일을 보고 나오다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참 많이 늙었구나. 목에는 주름이 쭉끌거리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볼따구니 살도 많이 <다음면에 계속>



## 전염병과 신경성 정신질환

Pandemic and Neurotic Symptoms

강 창 욱 (61, 메릴랜드)

김기택 시인의 “껌”이라는 시 속에 ‘누군가 씹다 버린 껌…/그 많은 이빨 자국 속에서/지금은 고요히 화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껌./ … 이빨들이 잊고 있든 면 살육의 기억을 깨워…’의 연(聯)들은 인류의 진화가 씹다버린 껌에 박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신질환 중에 이유없이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증(Phobia)이라는 것, 집밖은 어디를 가든지 무서운 공황장애(Agoraphobia)라는 것, 손이나 몸이 추하고 감염이 되었다는 펠 수 없는 집착으로서 불결공포증(Mysophobia)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모르는 불안(Anxiety)이라는 것은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호소이다. 불안은 모든 정신질환의 근원이라고 한다. 불안이란 이유를 모르면서 무서

운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다. 호랑이가 없더라도 강아지 새끼만 보고 무서움에 질리는 것 모양으로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집밖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무서움을 공황장애라고 한다. 무엇을 만진 후에 소독을 열 번하고도 모자라 손을 한없이 더 씻어야 하는 강박적 행동을 이성으로는 전혀 끊지 못할 병이 있다. 이런 행동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은 심한 불안 때문에 그런 증상에 나타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안을 조금이라도 이겨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을 신경적 증상(Neurotic symptoms)이라고 해왔다.

2020년에 인류가 겪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전면에서 계속> 빠져 볼이 훌쭉하고 나. 어디 입속이나 볼까. 아… 하고 입을 벌려 본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혀바닥에 웬 피가 잔뜩 묻어 있지 않은가.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기침도 안 했고, 목에 이상도 없었는데, 입에서 통증 없이 나오는 출혈이라.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백혈병? 골수암? 인후암? 폐암?

예후 좋은 건 하나도 없구나. 마누라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갑자기 심박동수가 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 70여 년 살았으니 살 만큼은 산 거지.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

가족들이 슬퍼할 것이 우선 걱정이 된다. 욕심 같아서는 둘째 손자놈 대학 들어가는 것이나 보고 가면 좋았을 터인데.

화장실 문을 나서면서 우선 마누라에게 이야기하려고 부르려다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본다. 아니, 아까 손자놈과 같이 먹었던 사탕이 빨간색 아니었나?

사탕 봉지를 찾아 확인해본다. 그렇다! 빨간색 사탕이었구나!

휴우… 한숨이 나온다.

마누라에게 차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 옆구리를 쥐고 웃는다. 그 후로도 마누라에게 여러 번 놀림을 당했다. 허나 암이 아니니 만, 만세다. 그저 나의 작은 건망증이었지. 휴우….

### 두 번째 이야기

007 영화가 새로 나왔다가에 큰마음 먹고 극장에 가서 보기로 하였다.

집에서 10여 분 떨어져 있는 뒤로 의사가 넘어가는 극장에 가서 보기로 하였다. 상영 시간을 보니 오후 4시 몇 분 것이다. 주중 평일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 이층 한가운데 좌석으로 표를 사고 들어가 앉았다. 지루한 광고와 예고편들이 겨우 끝나고 본편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나는 007 영화의 정석대로 제임스 본드가 걸어가다가 뒤돌아서며 총을 쏘는 도입부를 기다렸으나 웬일인지 그 장면은

나오지 않고 주연인 Daniel Craig 대신 Jason Stratham이 나온다.

웬일이야 이제는 007 영화에 거물 주역이 둘씩이나 나오나 보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영화는 계속 바닷가와 바닷속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제임스 본드가 Thunder ball이나 Dr. No에서도 바닷속에서 놀았지. 좀



더 기다려 보자. 아무리 기다려도 Craig는 보이지 않고 Stratham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논다.

한 20여 분 지나니까 감이 온다.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러니 어쩌랴 영화는 한참 진행되었으니 그냥 보고 가자.

영화가 끝나고 짐짓한 기분으로 나오다가 입구의 훌 넘버를 보니 11번 훌이다. 내가 볼 영화는 그 옆 10번 훌이었는데. 그런데 그 숫자가 광고판에 반쯤 가려져 있어 내가 얼른 알아보지를 못 했던 것이다.

나는 의례 11번 훌 옆이니 10번이겠지 하고 들어간 것이었는데. 그냥 나오려다 그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어 표 받는 젊은 청년에게 말을 했다. 이러고저고 해서 내 실수로 다른 영화를 보았는데 좀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슈퍼바이저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하더니 자기 상관을 불러 준다. 슈퍼바이저 역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I'm sorry to hear that. Here is a ticket voucher. You can come back anytime to watch that movie.”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무수히 고맙다고 하고 나왔다. 역시 아직 미국에 사는 보람이 있구나. 그래 역시 선진국이야.

콧노래 부르며 집에 와서 마누라에게 나의 다른 건망증 무용담을 이야기하니 박장대소한다.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그 영화를 보았다.

### 세 번째 이야기

미국 살면서 특히 남가주 살면서 제일 싫은 것이 관공서에 가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면허증 갱신하러 DMV에 가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다음으로 내키지 않은 일이다.

내가 오하이오주에 살 때에는 집근처에 DMV 사무실이 있었고 가 보면 항상 한산하고 기껏해야 10여 분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되고 하였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Online으로 예약을 하고 가도 30-40분 기다리고 매 과정마다 가축 시장에 간 가축 페처럼 의사에 들어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다 전광판에 내 번호가 나오면 지정된 창구로 가는데 여기서 또 잘 못되면 퇴짜 맞고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다시 와야 되는 아주아주 불편하고 불유쾌한 곳이다. 미국의 뷔로크 래시가 이 정도이니 제3국의 것은 어떨 것인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는다.

그날은 운전면허증이 만기가 되었

봐 무섭고,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한 뒤 손을 철저하게 씻어야 한다는 예방 수칙은 마치 위에 열거한 신경증에서 오는 증상의 행동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서를 막론하고 참으로 흔한 질환이다. 어떤 환자는 몇 년을 자기 집에서 홀로 있으며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어떤 환자는 손을 피가 날 때 까지 박박 씻기도 한다. 한여름에 장갑을 끼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외출을 할 때 마스크와 색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1918년에 구미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Spanish Flu)때의 사진을 보면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겨울에 감기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풍습이 거기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있는 역사가 길며 특히 흑사병(소위 Pest)은 유럽에 여러 번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 전염병 창궐과 같은 현상이 여러 번 있은 후에 마지막

으로 모든 사람이 모두 피해야 했던 것이 ‘죽음’이 이집트를 지나갔을 때이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이집트를 떠나게 된 역사가 있다. 로마의 자스티니언 일제(482-565)때 로마의 인구의 삼분의 일이 사망했다고 하며 어느 학자는 로마의 멸망의 시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인류의 상당한 수가 갑자기 이유 없이 살아지는 것을 본다. 잉카제국의 멸망은 누구도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설은 유럽의 정복자가 가져온 전염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보면 전염병은 인간의 심리에 깊이 역사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처럼 숨겨져 있고 그것이 인간의 풍습, 종교, 관습, 심리, 성격 등에 깊이 박혀 있으며 우리는 껌을 씹는 것처럼 늘 함께 하면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또 다시 놀란다.

그렇다면 신경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창궐이 그들의 질환을 더 심하게 할까 아니면 그들의 기존 증상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고통이 덜어질까? 이것을 연구한 논문을 찾는중이다.

자동차 키를 건네니 그녀가 사방으로 키를 누르며 다닌다.

이윽고 내가 찾던 반대 방향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거리며 ‘뽕뽕’하는 소리가 난다.

그녀가 내게 키를 돌려주며 웃지도 않고 말했다. “차가 저쪽에 있소.”

아이구, 그 창피함과 자괴감이란 이루 표현 할 수가 없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경비원이나 그녀가 무덤덤한 것으로 보아 나 같은 정신 나간 늙은이들이 이런 일을 자주 일으키는가 보다.

정신 차리고 잘 둘러보니 이곳 건물이 정사각형 대지에 세워져 있어 울타리를 면하고 있는 네 군데의 주차장이 다 똑같이 생겨먹어 그런 착오가 나온 것 같았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를 위로하려는 변명이다.

마누라에게 다시 전화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벌써 근처까지 다 왔단다. 마누라 만나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고 마누라가 낄낄 웃는 것을 참아 내야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자괴감과 무력함과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약간은 슬픈 감정으로 가득한 길이었다.

평소에 자주 쳐다보지 않던 거울을 오늘 아침에 면도 하려 쳐다본다. 머리털이 경성드듯하고 눈은 쑥 들어가고 볼때기에는 살도 빠지고 눈 밑은 축 들어졌고 목은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나를 보고 있다.

“거기 누구슈?” - 글: 이건일

### 농담 골목

내가 50년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내가 학회에서 조직 소견을 설명하고 나니 임상의사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환자를 현미경으로 조사할 것을 그랬군요.” (노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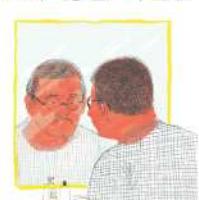
\*간단하게 10만불 버는 법\*

COVID-19으로 인한 집콕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마음이 유풍해지고 짜증이 나면서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답답한 심경을 달래기 위하여 읽을 만한 책을 인터넷에서 고르던 중 ‘간단하게 10만불 버는 법’이란 책을 발견하고 흥미로워 서점 주인에게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0만불 버는 법’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믿을만합니까?” 했더니, “그럼요, 백발백중입니다. 두툼한 부록도 있는데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하여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후에 책이 배달되었는데 덤으로 보냈다는 부록의 제목은 “감방에서 즐겁게 지내는 법” 이었습니다. (이덕승)

\*나이별 사랑방식\*

20대는 열정으로 사랑하고, 30대는 체온으로 사랑하고, 40대는 조화로 사랑하고, 50대는 동행으로 사랑하고, 60대는 추억으로 사랑하고, 70대는 주책으로 사랑하고, 80대는 잔소리로 사랑하고, 90대는 침묵으로 사랑한다.

우리 부부는 80대라 잔소리 사랑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서로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면 90대 침묵의 사랑은 평화롭게 통과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덕승)



# 한국은 왜 유일한 분단국가일까요 (5)

2019 미주서울의대 Medical Convention non-CME 강의 초록

## 온 기 철 (71, 남가주)

**맥아더, 총독부에 38선 이남 미국 점령 통보: 조선총독부 통치권 회수**  
여운형이 수권 작업을 시작한 지 겨우 닷새 지난 8월 20일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미군이 직접 총독부를 접수한다는 통첩을 받은 총독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건국준비위원회에게 내주었던 경찰, 학교 등을 다시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줄어든 경찰 인력의 80%를 군 병력으로 채우고 학교, 관공서 등을 다시 총독부 산하로 환수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팔았던 가구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총독부는 일본 극동사령부에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선인들이 미군에게 테러를 가능성이 많으니, 조선인들에게 치안을 맡기지 말고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건의했습니다. 총독부의 조선인 악선전을 그대로 믿고 극동사령부는 일본인에게 폭력을 가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 1945. 9. 8. 하지 중장 이천 도착

총독부는 인천으로 하지중장을 마중 나갔고 조선인들은 성조기를 들고 미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무고한 환영 인파에게 발포하여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 앞에서 조선인들이 폭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서었습니다. 24사단은 순수한 전투병력이었습니다. 행정능력이 없는 그들은 총독부 관리, 경찰 등을 교체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임시키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총통까지 유임시켰습니다.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부의 일본 통치 방침도 종전의 관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군정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론이 분분하고 본국에서 기관장들을 교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미군 장교들이 기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행정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불러난 일본인 기관장들이 그들의 고문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 중일전쟁: 일본, 중국에 항복, 중국 내전, 북한원조,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맥아더는 일본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1945년 9월 9일 일본이 중국에 항복함으로써 중일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조선이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반면에 중국은 엄연한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었고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은 모택동의 공산당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장개석과 모택동은 협상을 통해서 좌우 대립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46년부터 국공 내전이 시작되어 1949년 9 월에 장개석의 패배로 동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최강의 두 공산국가를 접경하게 되었습니다. 재빠르게 안정을 찾고 국가를 건설한 북한은 모택동의 공산군을 크게 도왔습니다. 소총 10만정을 비롯하여 탄약, 의약품 등 대량의 군수물자를 원조했습니다. 만주 조선인 인민해방군이 참여했고 북한의 김책은 3만 대군을 직접 지원하여 공산군을 지원했습니다. 도합 무려 10만 명의 조선 군대가 참여했습니다. 모택동은 이들이 사용하던 무기와 같이 모두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귀환 군인들은 한국전쟁 때 크게 기여합니다. 북한 전력이 20만 명이었으나 반이 중국에서 돌아온 군인이었습니다.

### 1945-1948 미 군정 시대, 미국의 남한에 대한 관점

중국에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남한은 미군정 시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방과 광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암울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엄연한 패전국의 영토였습니다.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은 각각 38선 이북과 이남을 점령했습니다.



미 군정의 시작, 내려가는 일장기와 미군의 경례를 받으며 계양되는 성조기

중국이 자체의 단결된 힘으로 일본과 싸워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리한 결과 자신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자웅을 결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는 외세인 소련과 미국이 한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군주에서 민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기획경제를 표방하는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여 유托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경제와 무역을 국가의 부의 필수 조건으로 굳게 믿고 있는 미국은 공산주의의 기획경제가 확산되면 시장경제의 괴멸로 인류가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내외의 공산주의자 척결과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합니다. 냉전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근거지를 박탈당한 한민족은 연해주, 시베리아, 만주, 중국 본토에서 소련, 국민당군, 중국공산당군과 연계하거나 합류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했고 두 이념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영향이 지배적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지식인들 간에는 군주와 지주를 부정하고 소작인 편에 서는 공산주의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념에 관계없이 일본이 패배한 후에 한반도에 분단된 국가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500년이 넘게 유지해 왔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 시기에 이러한 한민족의 여망과 두 강대국의 국익을 앞세운 정책이 충돌하게 됩니다.

미 군정 시기의 정황을 설명한 미 정부 기록물이 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중심으로 당시의 남한 정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정부는 미군이 남한에 들어올 때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군을 남한에서 축출한 후에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찰해보지 않았습니다. 소련과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산국가인 소련이 접경하고 있고 중국 내전이 모택동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접경지역 남아 있는 남한을 공산권으로부터 보호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남한을 “적군에 노출된 위험한 군사적 위치에 있는 쓸모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온 하지 중장의 임무는 점령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친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기반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독립단체들은 미 군정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배한 후에 당연히 나라가 자기들 손에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미 군정은 모든 독립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독립단체인 건국준비위원회는 중도좌파인 여운형과 중도우파인 안재홍으로 출발했으나 9월 6일 여운형·박현영 지도체제로 바뀌고 좌경화되어 인민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국외의 독립단체는 상해 임정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이 두 단체의 해산명령을 내립니다. 지방의 인민회의 해산명령이 내리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은 이를 무시하고 해산을 강행했습니다. 친일인사들의 등용과 한국말을 모르고 문화에 이해가 없는 군인들이 관료로 임명되어 저지르는 실정까지 겹쳐 미 군정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분위기를 타고 미 군정 한 달 후인 10월쯤에는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고 11월 23일 김구가 귀국했습니다. 임정 요원들은 전부 개인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미 군정이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12월 5일 신탁통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로 돌아가자 반탁으로 급선회했고 반대로 이북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뀝니다. 할 수 없이 미 군정은 국민을 무시하고 지주와 재산가에 의존하는 정치를하게 됩니다. 12월 30일 송진우가 암살되었습니다. 해방 후 최초로 암살된 정객이었습니다. 그는 우파 정객이었으나 그가 신탁통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자, 극우세력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였으면 한국 전쟁과 분단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 미 군정 김규식 지지

1946년 5월부터 47년 4월까지 미 군정은 김규식을 남한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초기에는 중도좌파인 여운형과 중도우파인 김규식을 도왔습니다. 중도파를 지원하면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좌우 양측에서 비난받게 되어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미 군정은 초기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부터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인민위원회(건국준비위원회)가 좌파인 여운형과 박현영 주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이 여운형을 지지하여 둘 사이를 분열시키고 박현영을 제거하여 인민위원회를 왜해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46년 12월, 미 군정은 의회를 만들어 헌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남한에는 무려 206개의 정당이 있다고 합니다. 보수 민주한국당과 좌익계열 정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의원 45명을 임명했는데 대부분 김규식이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은 진취성이 부족하고 대중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 군정시대의 경제와 사회

... seventy years counting in the case of North Korea during which Koreans suffered far more at the hands of fellow Koreans than they ever did under the Japanese.

From The New Koreans,  
Michael Breen

안동 김씨 세도, 대원군, 민씨 세도, 대한제국이 19세기 한국 정치사의 큰 제목들입니다. 이 시대의 민초들의 생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첨일전쟁과 러일전쟁 동안에는 조선이 일본, 청, 러시아의 병참기지였습니다. 초근목피, 나무껍질을 먹은 사람들은 소화되지 않은 나무껍질이 항문을 손상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똥구멍이 빗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의 연유입니다. 1910년 이후 일본의 강압정치를 한국 사람들은 극렬하게 비난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구한말 시대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 동안의 일제의 수탈은 또 한번 민초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의 패전과 해방은 민초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더 살기 힘든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일제는 일본 본토, 조선, 만주를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38선에서 막아놓고 북한과 만주가 없고 일본이 패전으로 남한과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중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발전소의 대부분이 이북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운송, 공장,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은 북한, 만주,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공장주와 기술자들은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통에 유입인구가 급증합니다. 120만 명이 일본에서, 12만 명이 만주에서, 북한에서 180만 명이 일 년 사이에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1947년, 50%의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군정을 믿지 않게 되었고 파업과 태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중들은 자주 시위를 했고 여기저기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남한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 대구 10. 1 항쟁(1946)



미 군정은 식량정책에 실패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 소작인들에게서 식량을 공출하게 하여 배급해 주는 정책은 농민들을 크게 분개하게 했습니다. 친일인사들을 경찰과 관리에 임명한 데 대한 불만, 이들의 착취와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식량정책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대구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쿠데타로 식량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좌파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파 보다 좌파들이 일제의 탄압에 잘 견뎠기 때문에 전쟁 말기에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좌파였습니다. 황태성은 박상희와 같이 좌익 정치인이었습니다. 물론 <다음면에 계속>

# 돈 조바니

정유석 (64, 북가주)

'돈 조바니'는 약 2백여 년 전쯤 모차르트가 작곡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오페라다.

이 작품은 특히 음악가들 사이에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 그 방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로시니, 구노, 바그너 같은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오페라라고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베토벤은 이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토를 달면서 찬사를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돈 조바니'는 '돈 환'을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이름이어서 이 오페라는 역사상 손꼽히는 한 호색한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 셈이다.

잘 알다시피 대로 돈 환은 수많은 여지들을 꼬여 동침한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 돈 환은 아마도 '강박성격장애'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환자가 아니었을까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추측하고 있다 요즘 정신과 의사들의 관심사인 질환 중 하나가 섹스 중독이라고 불리는 강박적 성행위다.

미국 성인의 5%, 즉 20명에 한 명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이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은 성욕이 지나치게 강한 상태를 지나 섹스가 하나의 강박 증상으로 되어있는 점이다. 어릴 때부터 지녀온 만성적 불안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음식을 계속 먹는다거나 술이나 마약을 사용해 해소해 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섹스

행위를 통해서만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한다. 여자들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미혼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기혼자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멀쩡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은밀한 매춘행위를 통해 난잡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 후에 심한 자책감이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겪은 외로움과 수치감, 경우에 따라서는 은밀하게 자행된 성적 학대나 타의에 의한 강요된 성경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어보지도 못한 삭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돈 환의 문제 중 하나는 정복한 여자들의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는 강박증상이다. 친한 친구들도 열이나 스물이나 넘으면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 자신과 관계를 가진 무수한 여자들의 명단을 수첩에 적어 보존하는 행위 속에는 이미 사랑도 애정도 없어 보인다.



프라하에서 상영중인 돈 조바니 인형극

요즈음에는 성행위를 일일이 동영상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데 마치 예전에 읽은 소설에서 한 그리스 사람이 성행위를 한 다음 일일이 여성들의 체모를 수집해 보관했다는 이야 기마냥 기이하기만 하다. 성행위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숫자를 세는 강박 행위가 돈 환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이 오페라 1막에서 돈 환의 시종 레포렐로는 주인이 밤이나 낮이나 쉴 새 없이 바람은 피울 때 자신은 밖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명단이나 적어야 하는 따분한 처지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주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커다란 기록부를 펼쳐 가면서 다음과 같이 떠벌리고 있다.

"귀부인. 잠시 들어보시오, 나와 같이 읽어 봅시다."

주인은 치마만 들렸으면 부자나 빈자나 상관 않고 미추를 가리지 않는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름과 직업을 모두 이 책에 적어 놓았소.

이탈리아 여자가 6백40명, 독일 여자가 2백31명, 프랑스 여자 1백 명, 터키 여자 91명, 그리고 스페인 여자는 무려 1천 명 하고도 또 3명. 이들 중에는 농촌 아낙네, 하녀, 도시처녀, 백작 부인, 남작 부인, 후작 부인, 왕비나 공주 등, 신분이 귀천이 없고 체형이나 나이에 구별이 없소.

금발 머리에게는 친절하다고, 갈색에게는 정숙하다고, 흰머리에게는 부드럽다고 아첨을 떨지요.

겨울에는 풍성한 여자, 여름에는 마른 여자를 선호하고 키 큰 여자에게는 장엄하다고, 키 작은 여자에게는 항상 매력적이라고 칭찬합니다.

명단에 오른 이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늙은 여자도 마다하지 않은데 그래도 선호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젊은 초짜들이지요."

기록부에 명단을 늘리기 위해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돈 환이 정작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잠자리일까 아니면 적어둔 여자들 이름의 숫자일까.

## 코스모스

노영일 (68, 시카고)

가을이면 생각나는 꽃.

고향의 꽃, 향수의 꽃.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하여

곧게 서있는

청초한 여인처럼

섬세하고 해맑은 꽃잎이 정갈스럽다.

가냘픈 허리는

하늘하늘 산들 바람에 흔들리며

수줍은 소녀같이,

호젓한 시골길

외로운 나그네에게

손짓을 한다.

신이 창조한 첫번째 꽃,

무슨색을 입힐까

이 색깔 저 색깔 칠하다 보니

여러 색깔이 나왔다 한다.

혼자 있어 아름답고,

모이면 더욱 다정한 꽃.

서늘한 달빛 아래서는

서글프도록 애처러운 꽃.



그림: 노영일 동문

하여 38선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과 소련의 붕괴로 전통적인 대륙 세력인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한의 기적과 우리 민족의 염원**

5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남한의 국민소득은 세계 7위입니다. 한반도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지만 남한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인구를 무시한 국민 총생산량을 비교하면 세계 10위입니다. 엄연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여러 발전도상을 겪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는 한국민들은 아직도 약소국이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역사에서 보시듯이 불리하기 짝이 없는 여건을 이기고 겨우 70년 만에 지금의 남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불가사의입니다. 많은 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억압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실시되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자 전 국민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자주독립국가를 유지하려면 외세를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을 넘어선 우리 민족의 발상지인 만주를 회복하여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일본 선진화와 태평양세력의 등장**

지도상에서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보이는 한반도는 태평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대륙세력이 강할 때는 중국에 예속되었고 태평양 세력이 강할 때는 일본이 강점했습니다. 강력한 태평양 세력인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이기고 남한으로 들어오자 북에는 강력한 대륙세력인 소련이 등장

<전면에서 계속>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불만에 찬 민중을 지휘하여 경찰과 관공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박상희는 박정희의 셋째 형이고 박정희가 항상 의지했던 형이었습니다. 박상희의 딸이 김종필의 아내입니다. 박상희는 경찰 총에 맞아 죽고 황태성은 47년에 월북합니다. 5.16 후에 황태성은 김일성의 밀사로 남파되어 박정희를 설득하여 적화통일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체포되어 사형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국은 남한에 친미 정부를 만들고 철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에게 5년에 걸쳐서 5백만 불을 원조해 줄 것을 결정하고, 한국 독립인정안이 유엔을 통과했습니다 (1947. 11). 1948년 5월,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가 총선거 감시를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소련은 인구비례로 국회 의원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는 유엔안에 반대했습니다. 인구가 남한보다 적은 북한이 정권을 잡을 공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총선을 반대하자, 분단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정객들은 두 파로 갈라집니다.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파와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는 파였습니다. 이승만은 1947년 6월, 정읍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4월 평



## 인격장애 IV Personality Disorder

### 부제: 당신은 정상입니까?

이 원 택(71, 남가주)

#### 속박성(anankastic: aka 강박성: obsessive-compulsive) 인격장애

심리학적 검사로는 Yale-Brown 강박성 조사 설문서 또는 MMPI 같은 주관식 검사가 있으나, 이것은 그 정도를 알아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속박성 인격장애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얘기를 잘 듣고 그 태도를 잘 관찰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감별진단인데 이때 기관적 장애로 분류되는 진짜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와 잘 구별해 주어야 한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인격장애가 심해지면 강박장애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하겠으나, 강박장애 환자의 일부만 속박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고 의존성이나 회피성 인격장애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증세가 심한 것은 물론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유전이나 뇌의 크고 작은 병리 현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강박장애는 아마도 기관적 고장이 주원인이고 속박성 인격장애는 다른 인격장애와 마찬가지로 기질적 병변이 없이 우리의 심성을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운영장애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점은 강박장애에서는 환자가 떨쳐버릴 수 없는 상념(obsessional idea)이나 불가항력적 행동(complulsive action)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나, 속박성 인격장애에서는 오히려 이런 성향은 타인에 비해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위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자에서는 행동보다는 상념이 더 문제이고, 후자에서는 상념보다는 행동이 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강박성 인격장애와 강박장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질병이라는 게 정설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자는 그 병명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 우매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믿고, 무식한 미국 놈들이 쓰는 강박성 인격장애 대신에 유식한 유럽 어른들이 쓰는 anankastic 이란 말을 쓰기로 했는데, “강박”장애와 구별하기 위해 이를 “속박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긴 사전에도 없는 anankastic 이란 말 대신에 아주 쉬운 우리말 “꼼쟁이”라고 하면 속 시원하겠으나, 대한민국의 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대가들이 모여서, 대인격장애의 대명사를 만든 것이 겨우 “꼼쟁이”라면 너무 쪽팔리는 일일 것이다.

강박장애에 잘 듣는 clomipramine이나 fluvoxamine 같은 SSRI도 속박성 인격장애자한테는 잘 안 듣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역시 심리요법이다. 집단치료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하므로 초장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도전을 받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길까 하고 고민하다가 새로운 처세술을 개발해 내기도 한다.

개인 치료로는 역동 심리치료보다 인지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이때는 조그만 실수도 참지 못하고 세상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야만 지상천국이 온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을 제련할 때 18금을 만

들 때는 1시간의 노력에 50원만 들이면 되고 24금을 만들 때는 3시간의 노력에 150원 들이면 되는데 99%짜리 순금을 만들려면 10시간 노력에 1000 원이 든다고 하자. 그리고 100%짜리 진짜 진짜 순금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보석상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금은 18금이나 24금이면 충분하다.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금괴도 99%면 만고땡이고 만약에 100%짜리 순금이 있으면 이는 박물관의 전시용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술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고도의 정확성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직업에서는 사실 이 속박성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다. 저자를 비롯한 우리 의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부터 강박성 체질을 타고 난 사람들이 이런 직종을 선호하는지 또는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 성격이 그런 쪽으로 발달되었는지는 마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와 같을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당히 조직적이고 자기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큰 합병증이 없는 한 근근이 버티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은 정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전에 저자가 디트로이트의 한 병원에서 인턴 노릇을 할 때 한 일본인 일반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 수술 일정이 잡히면 모두가 엉덩이를 빼고 조수로 들어가기를 꺼렸다. 왜냐하면, 위 절제 수술을 할 때 다른 의사들은 빠르면 2시간 늦어야 2시간 반이면 끝나지만 이 양반은 장장 5시간이나 잡아먹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속박성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위를 잘라내고 나서 출혈을 방지하느라 실핏줄까지 지져대고 봉합은 0.5cm 간격으로 촘촘히 해야 안심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양반이 시술한 환자들 대부분이 장기 파열, 장기 유착, 감염 등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요는 모든 것을 다 꿰매버리면 각종 분비물이 분출구가 없어서 고였다가 썩게 마련이고 또 수술 시간이 길수록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 후에 보니 결국 이 일본인 의사가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지나치게 잘 하는 것은 조금 잘못함만 못할지니라 인 것이다(과유불급 - 영어로는 more is not always better).

#### 경계성(borderline) 인격장애

평생 유병률은 1.5% 정도이며 청년기에서 주로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두 배나 더 많이 진단되고, 응급실이나 정신과 병동에서는 약 25% 까지 발견되며, 정신과 외래환자의 최고 10% 정도에서 이런 인격 장애를 대하게 된다.

이 성격 장애자의 형제자매 중에 대형 정감 장애, 약물중독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격성이거나 충동성, 불안정한 정서 등의 기질(temperament)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전두엽과 변연계를 연결하는 회로에 이상이 있을 때 경계성 인격 장애자가 많다고 하나, 정석은 심리·사회적 성장 과정에서 뭔가 뒤틀렸기 때문에



## 春望(춘망, 봄날 바라보다)

杜甫(당대 시성 두보)

번역: 정관호(63, 대뉴욕)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나라는 깨어져도 산하는 의구하니
국파산하재하니	성춘초목심을	성에 봄이 와 초목은 무성하고나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시절을 느끼니 꽃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시화천루요	한별조경심을	이별을 한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봉화는 석 달을 계속하기에
봉화연삼월이요	가서저만금을	집 편지는 만금이 오히려 싸도다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흰 머리 긁어 짧아지니
백두소경단하니	혹욕불승잠을	거의 비녀를 이기지 못하네

#### 鑒賞(감상)

“국파산하재, 성춘초목심.” 하니, 시편을 일단 시작하여 춘망의 소견이다: 산하가 의구하다하였으니, 가히 국토는 이미 함락되었고, 성지는 전화 속에서 파괴되어, 견뎌 내지 못하고, 어지러이 풀만 자라며 수목은 황폐하였다. 시인 기억 속에 그 옛날 장안의 봄날 얼마나 번화했고, 새소리 꽃향기, 날아 떠다니던 벼들개지 가득차고, 연무가 그윽한 벼들 숲은 맑고 아름답고, 유객은 한가로이 거닐고.

그러나 그러한 경상은 오늘 날 이미 헛되이 없어졌다.

한 글자 “파”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놀래니, 이어서 일개의 “심” 자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처연함이 눈에 가득차다.

웹페이지 제목과 주소: [唐詩] 春望: 봄날 바라보다 杜甫: 두보  
<http://www.snuma.net/xe/freeboard/42210>

생긴다는 분석학적 견해이다.

미국의 여류 소아정신분석가 Margaret Mahler(1897-1985)는 어린애가 어머니라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심리 과정을 3단계로 나눈, 분리 개별화 이론(separation-individuation theory)을 주장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단계(5개월에서 36개월까지)가 마무리가 안 됐을 때 이와 같은 인격장애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중요 방어기 제도 극심한 흑백논리에 바탕을 둔 사고나 정서의 격리(splitting)라고 했으나, 저자가 보기에는 이들은 대개 아주 어렸을 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원천적 신뢰(basic trust)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원천적 믿음은 갓난애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제대로 된 어머니는 다 알아차리고 어린 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배가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운다.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어머니는 애가 우는 이유를 금방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책을 해 주는데, 이 때 어머니가(또는 보모가) 없거나, 있어도 배가 아파서 우는데 계속 젖어주거나, 뚱 기저귀 빨기가 귀찮아서 산지사방 매닥질을 하게 놔둔다면, 어린이는 그 어머니한테 신뢰감을 쌓아갈 수가 없다.

즉 어린이의 필요는 자꾸 커지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 어린이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고, 악을 써서 울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어린애가 왜 그러는지는 생각 않고 애 버릇 고친다고 젖을 안 주거나 볼기찌를 때리는데, 이때 어린이는 어머니한테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어머니가 막상 가까이 오면 혹시나 또 매나 얻어맞는 게 아닌가 지레 겁을 먹고 한 발짝 물러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경계성 인격장애자의 75%에서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어른한테 성적,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는데, 이것은 자신이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로, 어머니 상(mother figure)으로부터 항상 배반을

당한 아이들이, 대인 관계에서 절대로 필요한 원천적 신뢰(basic trust)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원천적 신뢰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고 배가 아파서 울면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는 등, 항상 어머니를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이다. 나이가 들고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의사, 목사님, 상사, 경찰, 군인 등(정치가는 빼고)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차차로 사회적 신뢰감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이 이원택 박사는 항상 찾아가는 주유소가 따로 있는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그 집이 제일 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기름을 넣고 집에 오다 보니까 그 집보다 갤런당 1센트가 더 싼 주유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깨어진 신뢰(broken trust)로서 일종의 배신감인 것이다. 저자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안(못)된 것은 순전히 우리 어머니 덕이다. 즉 어렸을 때 이원천적 신뢰를 쌓을 수 있던 사람은 나중에 기관적 장애가 없는 한 그대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

정신질환 중에서 그 증상이 경계성 인격장애만큼 현란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없다. 또한 이것만큼 별명이 많은 질환도 없다. ICD-10에서는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라고 하고 이를 다시 충동형과 경계형으로 분류했고, 예전에는 이동성(ambulatory) 정신분열병, 유사성(as if) 인격장애, 허위 신경증적(pseudo neurotic) 정신분열병, 정신병적 성격장애(psychotic character disorder), 총체적 신경증적 정신병(pan neurotic psychosis) 등등으로 불리어지던 질환이다.

그러면 경계성이란 과연 무엇을 경계로 한다는 말인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병명에서도 보았듯이 경계선 밖으로는 정신병, 그 안쪽으로는 신경증이 있는데 이 경계성 인격장애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경계선을 넘어 망상, 환청, 현실감각 상실, 파괴적 행동 등이 오는 <다음에 계속>

# 2020-21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안우성 회기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1949 고영철	1950 한원봉 나수섭
1955 박병원	1956 박상기
1957 서영환 임종식 임종원	
1958 김부근 김시한 김학륜 배영섭 유영호 이만택 이종국 Mrs. 이운순 최병두	
1959 강상진 강재룡 김용덕 나길진 반용균 서경화 정태진 최대한 최종진 최혜숙	
1960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염극용 이광준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1961 강창욱 곽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상일 이재우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회백 장성환 정두현 조은순	
차철준 최공창 최지원 최태순 한수율 한혜원 황현상	
1962 김석식 박종건 박종승 박진수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영웅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1963 강영호 권영조 김갑중 김재종 김주응 김태형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선종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옥 이승현 이재명 장세곤 조열하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유창남 윤홍기	
이재풍 이정필 이종성 이홍표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용만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선우세현	
1965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득현 박수안 백길영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조성구 채도경 최동욱 흥수웅	
1966 김우신 김진수 김충규 이성근 이영은 이영일 장한교 조관상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1967 김동수 김성철 김영철 박정일 유 달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태안 지일성	
최승웅	
1968 이건일 차재철 김재관 송창호 홍광신 안금환 최 철 황훈규 김경인 안세현	
서윤석 신규호 박정식 김영덕 문광재 김진홍 김희주	
1969 김중권 김창남 송용재 엄규동 오선웅 윤효윤 임웅규 천양곡	
1970 박홍식 방준재 오석일 송요준 이명상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1971 강유구 강창홍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정자 오상현 이성길 조세진 하준영 홍성진 활동하	
1972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장혜숙 정진우	
1973 김정용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1974 구재훈 김웅진 임자은	1975 김원정 김자억 박인영 전경배

〈전면에서 계속〉 정신병적 상태(소위 말하는 micro-psychotic episode)가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경계선을 반대 쪽으로 넘어서 겉으로는 조용한 “정상인”으로 되돌아오나, 그 밑바탕에는 총체적 불안감(pan anxiety), 총체적 공포감(pan phobia), 총체적 양면성(pan ambivalence) 등 모든 신경증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불안한 안정성(unstable stability) 또는 안정한 불안성(stable instability)을 나타내는, 성질이 고약하고 변덕이 죽 끊듯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고 자신감이 없으며 속이 텁 빈 것 같은 공허감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그것을 메워주기를 갈망하나,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이용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의사가 자기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는 카드도 부쳐주고 용케 생일을 알아내서 선물도 하곤 하는데, 어려서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의사한테 기대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와 친근감을 형성했을 때는, 이 친구가 정말로 나를 환자가 아닌 친구로 대하는가? 한번 실험을 해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휴가를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음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그와 같은 사건을 자살 시늉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면 그다음번에는 면도칼로 자기 팔목을 사정없이 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한테 한번 물리면 학경도 여자한테 물리는 것 이상으로 곤욕을 치르기가 십상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가슴에 뚫린 구멍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채워 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정열을 쏟아부어야 되나니 어떤 (미친) 의사가 그 짓을 하겠는가.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5명만 되면 의사도 보따리를 싸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타인인 의사도 그럴진대 가족이나 애인쯤 되면

그야말로 임자를 만난 셈이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으로 몸을 짓은 자기가 도맡아 해놓고 나중에 설레발을 치다가 비명에 간, 김형숙 씨가 이와 같은 경계성 인격 성향이 있었던 것 같다.

저자가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들한테 사례연구(case study)를 해오라고 할 때, 그들이 고른 환자가 병명이 5개 이상 오르내리면 그 환자는 무조건 경계성 인격장애자라고 보면 된다. 정신분열병(조현병)은 그 증세가 장기적이고, 경계성 인격장애에서는 그 정신병적 증세가 간헐적이며, 정감 장애 때는 허탈감이 병세에 따라 굴곡이 있으나, 경계성 인격장애 때는 평생 지속되고, 다른 인격장애보다 훨씬 더 대인관계에 예민하다. 이들은 또한 약물남용이나 중독에도 쉽게 빠지는데, 대개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계성 인격장애의 치료만 다른 책들이 수십 권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으로서, 만약에 이런 환자를 잘 치료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과를 정복(master)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약물치료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신통한 것은 하나도 없다. 기껏해야 대증치료로서, 리튬(lithium)은 분노나 초조감 또는 자가 파괴 행동들에 유효하다고 하고,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은 분노와 충동성을 조절해 주고, 발프로산(valproate)은 초조감과 공격성을 줄여준다고 한다. 또한 올란자핀(olanzapine) 같은 비정형 항정신병약들이 편집증이나 다른 정신병적 증세를 완화시키고, SSRI 같은 항우울제가 우울증, 공격성, 자살 위험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약물치료는 소량을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하도 그 증세가 극적으로 과장되어 있고, 또 환자보다 의사가 더 절박한 사정에 빠지는 수가 많으므로, 고단위의 항정신약물을 투여하려는 유혹이

1976 김정아 안우성 한승신  
1982 차민영  
1991 홍정연  
2001 김민정  
2008 이익재

1977 김동훈  
1984 서귀숙  
1999 이재용 한효숙  
2003 조수정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동문

## 37th CONVENTION DONATION

임종식(57) 500 이종석(60) 100 강창욱(61) 100 황현상(61) 75 정정수(62) 300  
이재풍(64) 10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500 장한교(66) 100 이건일(68) 200  
윤효윤(69) 1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조세진(71) 75 나두섭(73) 2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안우성(76) 10,0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10,000

## GREEN PROJECT FUND

이종석(60) 75 박종승(62) 100 정정수(62) 175 이홍표(64) 100 차재철(68) 100  
이성길(71) 200 오용호(72) 300 김원정(75)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서귀숙(84) 100 홍정연(91) 100 한효숙(99) 100 조수정(03) 100

## CHARITY FUND

라찬국(64)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99) 100 채도경(99) 100 최영자(66) 200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하준영(71) 75 문대옥(73) 500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 SCHOLARSHIP FUND

김학륜(58) 100 최종진(59) 150 이종석(60) 50 임필순(60) 200 한수웅(61) 100  
황현상(61) 100 이기범(62) 375 김재종(63) 200 한기현(63) 275 이재풍(64) 100  
이홍표(64) 125 김길중(65) 500 이영균(67) 100 차재철(68) 100 오석일(70) 15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200 서정자(71) 350 김웅진(74) 100 김자억(75) 500  
한효숙(99) 75 김태웅(63) 장학금 10,000

## GENERAL DONATION

임종원(57) 75 유영호(58) 200 강상진(59) 250 서경화(59) 50 박명근(60) 50  
이종석(60) 50 임종원(60) 50 강창욱(61) 100 손기용(61) 200 장성환(61) 100  
황현상(61) 100 박종승(62) 250 권영조(63) 800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양운택(64) 100 이재풍(64) 50 이홍표(64) 50  
최준희(64) 175 박수안(65) 100 이한승(65) 50 김진수(66) 100 김성철(67) 75  
이건일(68) 175 차재철(68) 175 홍광신(68) 100 안금환(68) 75 김희주(68) 100  
김중권(69) 200 송용재(69) 200 김창구(71) 100 서정자(71) 50 오용호(72) 200  
나두섭(73) 200 김동훈(77) 200 서귀숙(84) 100 Mrs. 주창준(56) 200 Mrs. 이운순(58) 5,000 Mrs. 신영철(59, 신영주) 300

도사리고 있으나, 의사가 환자 손에 놀아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뭐니뭐니 해도 경계성 인격장애자의 치료는 심리치료로서 그중에서도 개인 요법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 때 의사와 환자 간의 구역(boundary)를 정해놓고, 제한된 여건(limited-setting) 내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를 정립시키는 체계적(structured)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흔히 쓰는 방법이 혜겔의 변증론에서 나온 변증법적 행동요법(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이 말을 왜 변증법적이라고 번역했나는 제2권 치료 편에서 설명하겠음. 이것은 요즘 잘나가는 인지치료의 한 방법인 소위 DBT라는 것으로 이것을 모르면 정신과 전문의라고 할 수 없음)인데, 우선 첫 단계로 지지도법을 통해 환자와의 치료 동맹을 맺은 후, 다음에 나타나는 환자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해내고, 그다음 단계로 환자의 병적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장기적 불이익을 일깨워주는, 정, 반, 합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의사의 관심이나 애정을 끌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는 자살 소동도 불사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원래 목적에 반하여 의사를 더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며, 의사도 사람인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같은 방법을 쓰면,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는 늑대(crying wolf)” 같이 나중에는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놀라게 한다고, 무시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때 의사 한 사람한테만 너무 집착하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집단치료 요법도 병행하면 좋다. 이는 상호 간의 극심한 애증이 몰고 오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자는 언젠가 연방정부 보험인 Medicare에서, 어떤 환자가 일주일에 세 번씩 2년간이나 심리치료사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아마도 경계성 인격장애자와 속박성 인격 성향을 가진 치료사의 궁합이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보통 의사 같으면 너무나 끈적끈적해서 그와 같은 찰싹떡 치료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나라도 돈과 시간을 무한정 주면 경계성 인격장애자라도 한 10명쯤은 무리 없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긴 어떤 의사는 경계성 인격장애자는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뛰어나오고, 산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지면 무치료가 상치료(no treatment is the best treatment)라는 비관론을 피력하지만서 말이다.

반복적인 자가 과괴성 행동, 치료방해,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경과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니다. 평생 자살률도 10% 정도나 되며 약물중독, 성생활 문란 등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들이나, 이것도 무대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마찬가지로, 불혹의 나이 40쯤 되면 그 증세가 많이 수그러진다.

저자가 처음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 상급자들로부터 3명의 환자를 물려받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이 경계성 인격장애자였다. 선임 레지던트는

“Dr. Lee, 내가 아주 재미있는 환자를 하나 인계하고 갈게” 했고, 조교는 “아주 도전적인 사례(case)”라고 했으며, 지도교수는 “아마도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사탕발림을 했지만, 한 삼 년간이 세 명의 환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내가 진이 다 빠져서, 논문이고 나발이고 내 밑에 새로 들어온 병아리 레지던트들한테, 같은 수법으로 덤터기를 써우고 빠져나온 적이 있다.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나 부인이 이와 같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졌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는 you are in for a treat이라고 한다. 얼마나 안스러운 사람들인가(!)